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18호

Tuesday, May 14, 2024 A

오늘 MD 예비경선, 한인들은 누구를 지지하나

SPECIAL STORY

최근 예비경선에 참여한 메릴랜드 한인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5월14일 양당의 대선과 연방상하원의원 예비경선을 앞두고 조기투표에 참여한 한인들은 좀처럼 복잡한 속내를 꺼내길 주저했다. 한인 상당수는 연방상원의원 선거 앞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한인 김보씨(78세)는 1976년 메릴랜드에 이민와서 미군 생활 6년을 제외하면 계속 메릴랜드에서 살았던 올드타임이다. 그는 "공화당원인 것이 자랑스러운 사람이며 공화당 이념이 오히려 한인들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 "래리 호건 전 주지사의 안사람이 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선택해야 하나 고심했으나 결론은 그가 공화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호건은 사사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인물이고



다양한 선택 가능성에 한인들 저마다 '고심' 선택 기준 '편견·인연·관성·진영·이념' "트럼프 공화당 위해 호건 지지 포기" "민주당 상원 승리 위해 정통 민주 후보 선택"

기 때문에, 그가 당선돼 공화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트럼프를 상대로 정치적 흥정을 할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지지했던 인물을 밝히지 않았으나 "보다 보수적인 인물을 골랐다"고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원임에도 공화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호건 전 주지사를 지지한 한인도 있었다. 메릴랜드는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당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예비경선에서는 자신

의 선택에 따라 투표 참여 정당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은퇴를 앞둔 한인 정모씨(65세)는 "민주당원이지만 지금까지 호건 전 주지사에게 계속 투표해왔다"면서 "한인이라면 마땅히 당적을 가리지 말고 그를 지지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 1.5세인 서모씨(40세)는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공화당이 말하는 정책을 들어본다면, 한인도 아니고

한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공화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 중의 궤변"이라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투표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한인 백모씨(56세)는 트럼프와 호건에 대한 전략적인 투표 이유가 타당한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그들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나는 원래 한국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좌파적 성향인데, 트럼프가 과거에 북한 김정성과 대화하며 남북 긴장 관계 해소한 점과 바이든이 반대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트럼프를 찍었고, 나도 백인 사위를 봤는데 호건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를 다니는 주변 또래 친구들을 봐도 호건 전 주지사를 볼 때 백인 사위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채 기자 >> 3편 '예비경선' 으로 이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5개 경합주 여론조사 트럼프, 바이든 앞서

오는 11월 대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부분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욕타임스(NYT)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시에나대와 공동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6개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4천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네바다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38%)을 오차범위(±4.5%) 밖에서 앞섰고, 조지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바이든 전 대통령(39%)을 오차범위(±4.5%)를 훌쩍 넘어선 채 앞섰다.

애리조나(오차 ±4.2%)와 미시간(오차 ±4.5%)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49%와 42%의 지지율을 보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드했다. 펜실베이니아(오차 ±3.6%)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47%, 바이든 대통령 44%로 박빙 우세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에서만 47%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5%)을 오차(±4.5%) 내에서 앞섰다. **>> 6편 '트럼프' 로 이어집니다**

고객 납세자 수천명 세금신고 정보 유출

대행업자 2018~20년 빼돌려 인터넷매체 기사화 대중 공개 IRS, 4년후 피해자에 통보

국세청(IRS)이 납세자 수천 명에게 세금 신고 정보 유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법률정보매체 내셔널리뷰는 IRS가 지난달 12일부터 세금신고 대행 독립계약자에 의해 수천 명의 납세자의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에

걸쳐 세금대행업자 찰스 리틀존이 고객자산 및 관련 단체의 세금보고 정보를 훔쳐 인터넷매체 프로퍼블리카 및 다른 매체에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확보한 세금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유명 납세자들에 대한 일련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민감한 금융 데이터를 대중에게 알렸다.

이와 관련해 리틀존은 허가 없이 세금보고 정보를 공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 1월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데이터 유출 사건 4년이 지나서야

IRS는 유출 영향과 대처 방안을 고민하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서신 6613-A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신은 데이터 유출 및 리틀존의 기초 사실을 명시하고 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과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법무부 웹사이트(justice.gov/criminal/criminal-vns/case/united-states-v-charles-littlejohn)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RM-PEN.Victims@usdoj.gov 또는 Notification.7431@irs.gov)

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매체는 통보를 받은 납세자는 4년이 지났지만, 신문을 도용해 허위 세금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납세자는 IRS 및/또는 리틀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조항 7431에 따르면 납세자의 세금 신고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사람이 있을 경우 IRS가 "가능한 한 빨리"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IRS가 통보를 4년간 연기한 것에 대한 세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낙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들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6/3 - 6/7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중앙지검장 이창수...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 교체

민정수석 부활 옛세만에 인사 단행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39명 바뀌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사진) 전 주지검장이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을 부활하고 김주현(18기)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옛세 만에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해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6명의 고검장 및 17명의 신임 지검장을 새로 임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뿐만 아니라 1·2·3·4차장검사가 이번엔 검사장으로 전원 승진하면서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도 양석조(51·연수원 29기)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곤 전원 물갈이됐다. 양 부장은 이른바 법무·검찰 빅4(중앙지검장·검찰국장·반부패·공공수사부장) 중에서도 유일한 유임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을 총괄하게 될 이창수 신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특수통이자 기획형으로도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을 역임하며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재임했

던 송경호(54·29기)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지검장과 용산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건 올해 초부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과 '명품백 수수 논란'(형사1부) 수사와 관련해 송 지검장이 수사팀 내부 의견을 수용해 검찰 수뇌부에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뒤이어 용산 대통령실에 송 지검장 교체설이 돌기도 했다.

이름을 요청한 검사장급 인사는 "이미 임기를 2년이나 채운 데다 부산고검장 발령 자체를 '좌천'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간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검찰 간 이견과 마찰의 책임을 송경호 지검장이 지고 내려가는 모양새로 볼 여지도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송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원주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중앙지검장 보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총장 참모인 대검 부장은 8명 중 6명이 새로 보임됐다. 검찰부장의 경우 외부 인사 중 공모하는 개방직이어서 사실상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제외 한 대부분이 바뀐 셈이다. 이 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이번엔 임명된 대검 부장들은 사실상 차기 검찰 총장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형사부장엔 이진수(29기) 북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마약조직범

법무부 인사	신임 지방검찰청장은 누구	'검찰총장 참모' 대검 부장도 새 진용
변필건(49) 기획조정실장 30기 서울대 경영학 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창수(53) 서울중앙지검장 30기 성균관대 법학 현 전주지검장	전무근(51) 기획조정부장 31기 고려대 법학 현 성남지청장
송강(50) 검찰국장 29기 고려대 법학 현 인천지검장	박세현(49) 서울동부지검장 29기 서울대 법학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진수(50) 형사부장 29기 서울대 법학 현 서울북부지검장
	신응석(52) 서울남부지검장 28기 고려대 법학 현 대구지검장	노만석(54) 마약조직범죄부장 29기 성균관대 법학 현 제주지검장
	정진우(52) 서울북부지검장 29기 서울대 법학 현 춘천지검장	김태은(52) 공공수사부장 31기 서울대 법학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김선화(55) 서울서부지검장 30기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현 의정부지검장	정희도(58) 공판송무부장 31기 연세대 법학 현 안산지청장
		허정(51) 과학수사부장 31기 연세대 경제학 현 고양지청장

죄부장엔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기획조정부장은 전무근(31기) 성남지청장, 공공수사부장은 김태은(31기) 중앙지검 3차장, 공판송무부장은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은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을 새로 임명했다.

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관장하는 1~4차장검사도 이번엔 승진 형식으로 전원 바뀌었다. 김창진(31기)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김태은 3차장과 고희은 4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의

임기 말인 만큼 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후속 인사로 새로 임명되는 1~4차장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실의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인사에서 기존 '윤석열 라인' 분화 현상이 보인다"며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떠나며 1기와 비교해 '친한 색채'가 많이 얹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선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네 명의 재검지검 검사장과 의정부·인천·수원지검 검사장도 바뀌었다. 동부지검장엔 박세현(29기) 대

검 형사부장이,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장엔 신응석(28기) 대구지검장이 임명됐다. 북부지검장엔 정진우(29기) 춘천지검장, 서부지검장엔 김선화(30기) 의정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의정부·인천·수원지검장엔 각각 김성훈(30기) 창원지검장, 박재익(29기) 대전지검장, 김우철(29기) 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기획조정실장에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권순정(29기) 검찰국장은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은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정진우·양수민 기자

이창수 '윤 총장의 입' 맡았던 '찐윤'

대검 대변인 때 추미애 직격 비판
전주지검선 '문 전 사위' 수사지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냈다. 특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당시 '윤 총장의 입'(대검 대변인)으로서 강경 대응에 앞장서면서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2020년 1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자 '대검 중간간부

들의 입장'이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추 장관의 결정은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직격했던 인사 중 한 명이다.

결국 이 지검장은 이듬해 3월 윤 대통령이 먼저 총장직에서 사퇴한 지 두 달 만인 2021년 6월 인사에서 대구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했다.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 지검장도 수도권으로 복귀했다. 2022년 7월 수

원지검 성남지청장 부임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이 대표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에 전주지검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스트라켓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혹을 원한 법조계 인사는 "김 여사 수사를 전두주지휘하는 자

리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건 납득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검찰 장악력 유지를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사 바로 전날인 12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27명은 "이창수 검사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가 속도를 냈다"며 "수사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기자

워싱턴 날씨 (°F)

15일(수) 68~59	18일(토) 76~63
16일(목) 72~58	19일(일) 75~63
17일(금) 76~64	20일(월) 77~62

5월 14일(화) 73~62

워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식당	Beer & Wine	창고
유명 델리 DC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장부부 건물 1층, 손수익 = 주인운영 없이 만불	주2만불 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발티모아 부근 창고 임대 구하는 분 5000-8000
버블티 가게 1년 70만불 매출, 렌트 6천불 순수의 한달 1만6천, AP 36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창고자리 임대 전기시설 완벽, 9000 SF, VA 현근
식당 자리 6,408 SF, 알바나 메릴랜드	도장	그로서리
식당 자리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태권도장 자리 2700 SF, 임대, 버지니아 폴스처치	스페니쉬 그로서리 자리 5,484 SF, 폴스처치, 버지니아
식당 자리 7,100 SF, 단층짜리 단독 건물 임대 와싱턴 메릴랜드	태권도장 자리 29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상가
식당 자리 5500 SF, 임대, VA 페어팩스카운티	사무실	단독 건물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식당 자리 4500 SF, 임대, 차이나타운부근	에난데일 사무실 1200 SF 사무실, 병원 직함, 35만불	상가 매매 VA 비엔나, 연 손수익 52만불, 8백만불
식당 자리 7800 SF, 임대, 버지니아 에쉬번	사무실 자리 임대 고급, 타이슨스코너 클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24시간, 8300 SF.	발티모아 상업건물 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 아파트
식당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	사무실 자리 임대 워싱턴 디씨, 교통좋은 곳 사무실 임대회사 회사 찾습니다	주택
		콘도 방2, 화2, 차고1, 메트로근처 웨그맨 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 체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장 / 사무실 /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수지

정기점검 안하면 크레딧 망가져

크레딧 리포트 오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명한 소비자보호단체 컨슈머 리포트와 비영리단체 워크머니가 최근 미국인 4300여명의 크레딧 리포트를 조사한 결과 1개 이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가 44%에 달했다.

복수 응답으로 추린 오류 유형 중 34%는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55%는 주소, 34%는 이름 철자가 잘못됐으나 27%는 아예 다른 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히 4300여명 중 3200여명만이 크레딧 리포트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발급 절차에서 여러 메시지가 뜨거나 접근 불가 통지를 받았다.

접근 불가 통보를 받았던 이중 11%만이 오류 수정 후 발급이 가능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4300명 중 27%는 연체 기록 등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오류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59%는 부채 추심 기록, 22%는 연체 기록이 잘못 기재돼 있었으며 56%는 해당 리포트 대상자의 계좌를 인식할 수 없었다.

크레딧 리포트 오류 44%



이런 가운데, 연체 기록이 1회만 잘못 기재되더라도 크레딧 점수가 수백 점 급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크레딧 리포트 오류에 대한 불만 신고가 두배 이상 증가했다.

크레딧 리포트는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트랜스유니온, 에퀴팩스, 익스피리언)이 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개인 크레딧 관련 정보를 취합해 작성하는 개인 크레딧 상태 보고서다. 크레딧 리포트 오류는 곧바로 크레

딧 점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이 잘못 기재되면 잘못 표기된 다른 사람의 크레딧 점수가 내 것이 될 수 있으며 나 자신의 좋은 크레딧 역사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은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해 3대 크레딧 리포팅 기관으로부터 매주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이같은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무료 크레딧 리포트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해당 오류가 발생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통보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대형 신용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자신의 크레딧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거나 유출이 확실시되면 3개 크레딧 리포팅 기관에 통보해 신용 동결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

오류 수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해당 기관에 연락해 수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윤미 기자

돈은 못벌어도 내 시간은 소중 “미국인이 생각하는 1시간의 가치는?”

자신의 노동 시간급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시간은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계획서비스 자문기관 앤파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자신의 1시간을 240달러 정도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었다. 240달러를 시급으로 계산하고 매주 40시간 노동을 한다면 연소득은 49만9200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 근로자의 평균 연소득은 5만9384달러다. 세대별로도 1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상당히 달랐다. Z세대(1995-2009년생)는 266달러, 밀레니얼 세대(1980-1994년생)는 328달러로 나이가 들수록 1시간의 금전적 가치는 증가했으나 X세대(1965-1979년생)는 215달러,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생)는 137달러 등으로 줄었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 2200여명 중 1/3 정도는 50달러 미만이라도 답했으나, 밀레니얼 세대의 1/4은 500달러 이상으로 말해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했다. 응답자의 1/4 정도는 즐거운 업무 환경이라면 15% 정도 시간급을 할인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63%는 친구나 가족 등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1/3은 돈을 아끼는 것만큼이나 시간을 아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심지어 자유로운 시간을 줄더가 길 수 있다면 어느정도 빚을 내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욱재 기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맥클린한국학교(교장 이은애)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어버이 은혜’ 합창, 카네이션 만들기 등 어버이날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애 교장은 “학생들이 어버이날

을 맞아 날아주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세대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주권 사기 미주 한인 한국서 징역 9년

의사를 사칭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 다며 40여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인에 대해 한국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0일(한국시간)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 한인 A(5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여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6여여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총판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1면 ‘예비 경선’에서 이어집니다.
한인 이모씨(65세)는 “잠시 흔들리긴 했으나 후진국도 아니고 정실과 인연에 얽매어 호건에게 투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나의 고민은 유력한 두 민주당 후보 중에 누구를 찍느냐였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 사위”라는 말로 모든 선택 기준을 덮어버리려는 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씨는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 후보 데이빗 트론 연방상원의원과 앤젤라 울소브룩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군수 중에서 누구를 뽑느냐 고민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호건도 싫고 그의 부인도 싫다고 잘라 말하는 한인 이모씨(55세)는 “나는 아주 편견이 많은 사람인데, 흑인인 울소브룩스는 애초부터 배제했기 때문에 트론 의원을 선택하는게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인 차모씨(67세)는 “나 또한 인종적인 편견이 심한 사람이지만, 트론이 자기든 수천만달러를 들여 광고로 도배하고 마치 선거를 돈으로 사는 것 같



래리 호건

아 몹시 불편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화당에 가서 트럼프와 호건을 찍을 수는 없기에 울소브룩스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부담이 있긴 하지만 울소브룩스가 연방수사국(FBI) 본부를 메릴랜드로 끌여왔으며, 같은 흑인인 웨스 무어 주지사가 잘하는 것은 보면, 한번쯤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을 듯 했다”고 전했다.

의외로 사표방자 심리가 작동하기도 했다. 위스콘신에서 학위를 마치고 최근 메릴랜드로 이주한 한인 하모씨(37세)는 “예비경선에서 호건을 찍으려고 공화당 경선을 참여해 트럼프도 찍었지만, 11월 본선거에서는 대선과 상원선거 모두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들이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내 표가 쓸모없어지는 걸 원치 않아, 예전 선거에서도 계속 이기는 후보에게 투표해왔다”고 전했다. 김욱재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나차제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진보형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엇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척추교정, 물리치료, 한방, 침술 및 마사지 등 동·서양의 치료를 병행한 합리적 치료시스템으로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편안하게 치료받으세요~

환자분들이 오직 편안하게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보험처리, 서류작성** (변호사 선임) 등 복잡할 수 있는 문제들을 친절히 도와 드립니다.

진료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의학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80대 한인 극단선택 ... 울들어 6번째

일주일 만에 한인 시니어가 또 소중한 목숨을 끊었다. 9일 LA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전날 한인 시니어 오모(87)씨가 LA북동부 옥시덴탈 칼리지 남쪽 단독주택에서 총기를 사용해 극단적 선택했다.

검시국 측은 오씨가 자살했으며, 사인은 두부 총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전했다. 오씨의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지난 2일에는 웨스트힐스 인근 자택에서 한인 시니어 이모(85)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올해 들어 LA카운티 지역에서는 한인 6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인 정신건강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지난 3월 29일 LA한인타운 윌셔 블라바드 자택에서는 한인 문모(37·여)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월 29일 LA한인타운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한인 아들이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자살했다.

같은 날 랜초팔로스버디스 한 주택에서는 이모(40대·여)가 목을 매 숨졌다. 지난 2월 4일 몬로비아 철길 건물목에서는 김모(49)씨가 기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자살 예방 등을 위해 무료 상담 서비스 및 핫라인을 운영 중이다.

김형재 기자

양용씨에 발포한 경관, 총격 전력자

LAPD, 안드레스 로페즈 공개
올림픽 경찰서 7년차 2급 경관
2021년 정신질환 남성에 총 쏘
당시 검찰은 정당방위로 발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인 남성 양용씨를 총격 살해한 경관의 신원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경관은 불과 3년 전에도 정신질환자에 총격을 가한 전력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용씨를 총격 사살한 경관은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Andres Lopez·시리얼 넘버 43137·작은 사진) 경관이다. 이날 당국은 도미니크 최 국장이 지난 2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양용씨 사건에 연루된 경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채용된 로페즈 경관은 올해 7년 차로, 현재 2급 경관(Police Officer II)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페즈 경관은 3년 전인 지난 2021년 3월 23일에도 정신질환이 있던 용의자에게 총을 발포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LAPD가 당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올림픽 경찰서 정문 밖에서 시민을 돕고 있던 한 경관은 한 흑인 남성이 총으로 보

이는 물건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한 로페즈 경관은 용의자에게 총을 내려놓을 것을 명령했다. 그때 용의자는 손가락으로 본인의 머리를 가리키며 “그들은 내 머리에 있다. 그들이 내 머리를 다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시 다른 경관은 “그것(총)이 내 손에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의자는 “나를 쏘라”고 말했다. 곧이어 이 용의자는 경관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고 그 순간 로페즈 경관은 총을 발포했다. 용의자는 허반신에 총상을 입고 지역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목숨은 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나키에아 브라운(35)으로 신원이 밝혀진 이 용의자가 갖고 있던 총은 ‘모조 총기’로 밝혀졌다. 특히 용의자는 사건 이전에도 정신질환 문제로 LAPD의 정신평가부서(Mental

Evaluation Unit) 및 다른 외부 기관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LA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0월 보고서를 통해 로페즈가 자신 및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발표와 별개로 로페즈 경관은 그 뒤로 강등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격 사건 당시 서전트 바로 아래 계급인 3급 경관(Police Officer III)이었지만 지난 9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현재는 2급 경관으로 근무 중이다.

당시 총격 사건이 LAPD 내부적인 행정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LAPD에서 강등 조치는 위법 행위, 실적 부진, 부서 정책 혹은 절차 위반, 승진 요건 미충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에 대해 11일 올림픽 경찰서 에런 폰세 경찰서장에게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수아 기자



5월 어린이 관련 행사 풍성 5월 5일 어린이날, 5월 7일 선생님의 날, 5월 12일 마더스 데이, 5월에는 어린이들과 관계된 행사가 많은 날이다. 레인보우 어린이 학교(교장 유니스 이)는 지난 10일 3개의 행사를 합쳐 ‘부모, 선생님, 학생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했다. 어린이 학교 학생들이 뒷마당에서 살아 있는 부엉이를 쓰다듬고 있다.

김상진 기자

20여만불 모금 비한인 정치인도 지원

정치력신장위 본격 하반기 활동
검사장 선거에도 지원 가능성

미주정치력신장위원회(회장 하기환, 공동위원장 김봉현, 박성수·이하 신장위)가 일부 이사들을 교체하고 올해 하반기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3년 전인 2021년 9월에 출범한 신장위는 한인 후보들 뿐만 아니라 남가주 한인사회와 비즈니스 등이 집중된 지역의 각급 단위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을 초대회 정견을 듣고 기금 전달을 통해 정치적 네트워크 확장에 노력해왔다. 특히 신장위는 2022년 LA시장 후보 두 명 모두를 지원했으며, LA시 검사장, 가주 및 연방 후보들에게 1~2만 달러의 후원금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 연말과 올해 초 활발한 예산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본선 집중을 이유로 활동 보폭이 넓지는 못했다.

신장위는 지난 5일 모임을 통해 하반기 활동에 중요 사항들을 공유하고 주

요 선출직에 있는 한인 정치인들을 초

대해 소통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과 한인 비즈니스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당락 여부를 기준으로 비한인 정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라며 “당연히 한인 후보들을 지원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한인사회의 존재감을 알리는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신장위는 회장과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종 결정기구인 5인의 최고위원회를 구성해 책임감을 더하고, 지원

선정위원회를 새로운 인물로 구성해 선별 작업을 더욱 섬세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이사진은 40여 명 수준으로 유지되되 지난해 활동한 이사들 중 50%는 교체하면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신장위측은 회비와 최고위 특별 회비를 통해 올해는 총 20만 달러 안팎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금이 조성되면 곧 11월 선거에 발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범죄 퇴치를 두고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에도 일부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공화당 출신인 내이션 호크만 후보가 현역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 맞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남가주 내 연방하원 후보로는 미셸 스틸(45지구), 영 김(40지구), 데이브 민(47지구), 데이비드 김(34지구) 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상태이며, 가주 상원에 최석호 전 의원(37지구), 하원에는 존 이(54지구) 후보가 각각 본선에 진출했다. 동시에 LA 시의회에는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 그레이스 유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다.

최인성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기숙사 열라” 한인 여대생 대학 소송

컬럼비아대 프란치스카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후 자물쇠 바뀌며 출입 못해 “방 출입 금지는 불법 퇴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혼혈 여대생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학생은 시위에 나섰다는 이유로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고, 이러한 조치는 대학 측의 불법 퇴거라는 주장이다.

뉴욕주 맨해튼 법원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교 프란치스카 이(21)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기숙사 출입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학교 캠퍼스내 해밀턴 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대학 측은 시위대가 해밀턴 홀을 점거하자 해산을 요구했다. 결국 시위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진압 작전을 진행했고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소장에서 이씨는 “다음날 기숙사 자물쇠가 바뀌면서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했다”며 “옷, 학업 자료, 개인 물품 등이 모두 기숙사에 있는데 금지 조치 때문에 친구들과 밖에서 머물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률 단체인 크리스틴 클라크 변호사는 “컬럼비

아대학의 기숙사도 다른 뉴욕 내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대학 측도 퇴거를 하려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집행기관을 통해 최소 14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컬럼비아대학교 측은 10일 현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을 상대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제소는 계속되고 있다.

뉴욕 지역 비영리 언론 기관 고다미스트는 컬럼비아대학을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반대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처벌하겠다는 대학 측의 의지가 확고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실제 미누쉬 사피크 컬럼비아대학교 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학교 건물을 점거하는 등 극단적 시위에 참여한 학

생들에게는 정학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 학생들은 학교를 무단 점거했고 이에 캠퍼스에 출입할 권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컬럼비아대학 재학생으로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던 세바스티안 히메네스(21), 에밀리 후이(19) 등도 기숙사 출입을 금지당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히메네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학 측과 5일 내로 방에 있는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 기숙사에서 퇴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지역 출신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컬럼비아대학 4학년 학생으로 영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부전공은 인종·민족학이다. 컬럼비아대학에서 있었던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는 이씨를 포함, 총 113명이 체포됐다. 장열기 기자

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낼 수 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4만2천명으로 또 잘못 언급하면서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이를 바꾸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문에 대해 주한미군 숫자를 4만명으로 잘못 언급하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RSNB 등에 올라온 동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 말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문제를 언급한 뒤 한국에 대해 20조 가량 발언했다.

그는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4만2천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바꿨다.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방위비 협상)을 깨길 원한다”면서 “그(조 바이든 대통령)는 내가 너무 거칠었고(rough) 그들이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큰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

그는 당시 이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재임 중 한국이 미군 주둔 대가로 수십억달러를 냈는데 바이든 정부가 재협상했다고 잘못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는 3만5천명으로 언급하고 한국과 나 사이에는 (한국이) 우리에게 완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협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평균 2만 8천500명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정기적으로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SMA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2021년 당시 분담금은 약 8억5천 313만달러였으며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액에 맞춰 인상키로 했다.

가짜 보톡스 시술 11개 주 22명 사망

정품·시술자 면허 확인해야

최근 가짜 보톡스(사진) 시술로 가주를 비롯해 11개 주에서 22명이 사망하면서 가주 보건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8일 가주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무면허 비의료 기관에서 자행되는 가짜 보톡스 시술로 부작용 및 병원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토마스 아라곤 공공보건국장은 “가짜 보톡스는 소량이라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보건국 측은 가짜 보톡스 시술 예방을 위해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시술받을 것을 권장했다.

가주 내에서 보톡스 시술이 가능한 전문 의료 인력은 의사, 간호사, 의사 보조원(의사 감독하에)이다. 또한, 해당 의료인이 보톡스 시술 관련 교육을

받고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소비자는 보톡스 정품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짜 보톡스 시술을 예방할 수 있다.

공공보건국 측은 정품 보톡스는 제품 상자 외부에 BOTOX COSMETIC 또는 BOTOX, onabotulinumtoxinA, for Injection과 같은 설명이 표기되어 있다고 전했다.

반면, 가짜 보톡스는 제품 상자 외부에 Botulinum Toxin Type A, 150 Units, C3709C3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김경준 기자

스리라차 생산 중단 품귀 현상 재발 우려



매체는 스리라차의 주재료인 레드 할라페뇨 고추가 업체가 원하는 만큼 빨갛게 익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스의 맛과도 직접 연관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후이퐁 식품은 지난해 가뭄으로 레드 할라페뇨 고추의 주요 생산지인 가주와 뉴멕시코주 등 지역에서 고추 수확이 중단되자 소스 생산을 멈춘 바 있다. 우훈식 기자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품귀현상을 일으킨 스리라차 소스(사진)가 다시 생산 중단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후이퐁 식품은 인기 핫소스인 스리라차 소스 생산을 노동절인 오는 9월 2일 까지 멈춘다.

업체 측은 다음 고추 수확철인 노동절 시기까지 소스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결산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결산
달인과 함께 인생
유산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C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1석 5조 통합보험

5 in 1

-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 Life Insurance 생명보험
-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Sun Life of Canada, Aetna, National Western Life, etc.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스위스 84년만에 공산당 재등장

친팔 시위로 활동개시

스위스에서 84년 만에 공산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이 다시 만들어졌다.

스위스 노동자와 학생 등 320명을 창립 발기인으로 삼은 혁명공산당(RKP)은 지난 10~12일 베른주 부르크도르프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정당에서 정치비서직을 맡았다는 데르수 헤리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제국주의적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겪는 새로운 세대는 공산주의의 귀환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창당 이유를 말했다.

RKP는 무산계급을 상징하는 망치와 낫 그림으로 된 엠블럼을 채택하고 내년까지 당원 규모를 발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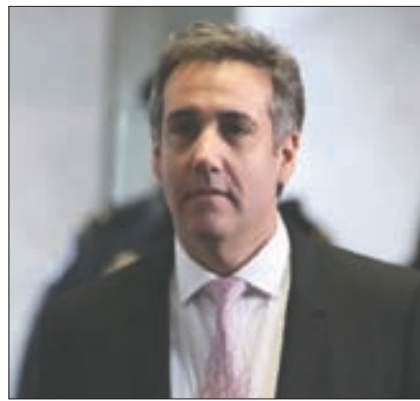
의 2배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은 스위스 대학가에서도 확산 중인 친(親)팔레스타인 시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RKP는 최근 스위스 대학 6곳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을 반대하는 시위에 당원들이 합류했다고 전했다. RKP는 이 시위에 연대하며 당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오는 6월에는 국제적 공산주의 연대기구인 ‘혁명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반(反)이스라엘 여론이 확산할 것이며 이런 기류를 활용해 국제적 반전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지변을 더 넓혀 보겠다는 취지다.

스위스에선 1921년 공산당이 처음 창립했다. 6천여명의 당원을 보유한 스위스 공산당은 1940년 사법부에서 해산 명령을 받았다.

“추문폭로 막으니 트럼프 고마워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한 코언 “트럼프가 원하는 일 뒤통지 했다” 2016년 대선 전 매일 수차례 대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핵심 증인 이자 돈을 지급한 당사자인 마이클 코언(사진)이 13일 법정에 출석해 ‘트럼프 해결사’로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어떻게 입막음을 해왔는지에 대해 증언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언론들이 보도했다.

코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톰미 대니얼스에게 합의금을 건넨 인물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된 각종 뒷일을 비밀리에 처리했던 ‘해결사’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언이 연방검찰에 기소돼 복역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돌아섰다.

이날 오전 검사의 증인신문은 2016년 대선 전 코언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2016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고, 이는 합당한 묘사였다고 증언했다.

이어진 검사의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리한 얘기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물어버리도록 코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집중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인콰이어러’의 모회사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페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얘기가 대중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당 정보의 독점 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보도하지 않고 묻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내셔널인콰이어가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 도어맨에게도 3만달러를 지급하고 그가 주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혼외자 의혹 독점 보도권을 사들인

뒤 보도하지 않은 게 대표적 사례다. 코언은 이날 도어맨이 제기한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이야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확실히 해줘야 한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언한 뒤 페커와 협업해 해당 의혹이 보도되지 않도록 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페커로부터 독점 보도권 계약서의 사본을 받은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일이 잘 처리되고 있다”라고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때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코언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눈 대화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당시 내셔널인콰이어러는 맥두걸에게 15만 달러를 지급하고 독점보도 권리를 사들인 뒤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코언은 독점보도권을 사는 데 들어간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중에 갚을 것이라는 점을 페커에게 증명하기 위해 해당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언이 증인석에 등장하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면만 바라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타스 연합뉴스]

우크라, 러 국방장관 교체에 “군사적 공산주의 전환”

러시아의 국방장관 교체에 대해 미하일로 포플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1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군사적 공산주의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러시아는 전쟁 규모를 키우고 형태를 확장하는 동시에 군수 공급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자 형태로 경제를 재구성하고자 할 것”이라며 “끝없는 전쟁에 자원을 제공하려고 국가를 군사적 공

산주의로 최종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공산주의란 경제를 완전히 군사화하고 군의 병참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벨로우소프 전 부총리는 군 경력이 없는 경제부 장관 출신이다.

“이스라엘 국방, 블링컨에 라파 ‘정밀 작전’ 설명”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정밀한 군사 작전’에 대해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간밤 갈란트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전화 통화 소식을 전하며 “국경을 확보한 상태에서 라파에서 하마스 잔당을 겨냥한 정밀한 작전을 비롯해 가자지구에서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

은 물론 인질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라파를 지상에서 공격하지 않고는 하마스 소탕,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피란민 약 140만명이 몰린 라파에서 시가전이 본격화하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할 경우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라파 진입 작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국방부 제공]

▶ 1면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투표 의향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간에서 47%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6%)에 앞섰지만,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로 바이든 대통령(46%)에 역전했다.
투표 의향층을 대상으로 한 다른 지역 조사의 경우 1~2%의 지지율 변동은 있었지만 추세에는 변화가 없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무소속 후보를 추가할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다자 대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을 제외한 5개 주에서 모두 41~38%의 지지율을 기록해 바이든 대통령을 최대 14%포인트, 최소 4%포인트 격차로 제쳤으며 케네디 주니어는 1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다.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8%로 동

률을 기록했고, 케네디 주니어는 9%의 지지를 얻었다.
NYT는 “이번 조사 결과 유권자들이 미국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격전지 유권자의 경우 변화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분석했다.
인플레이션과 중동 전쟁 등 동반 악재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대통령은 특

히 2020년 대선 승리를 결정한 핵심 지지층의 하나인 젊은 층과 유색 인종 모두에서 지지를 약화할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거듭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29세 젊은 층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서 동물의 지지를 기록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흑인 유권자층에서도 20%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이는 공화당 후보에 대한 역대 지지

가운데 최대 수준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신문은 다만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론 조사가 추세가 선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특히 젊은 층과 유색인종 등 민주당 지지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이 얼마나 견고한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는 이들 경합 주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페어팩스 한인교회

헌당예배

페어팩스한인교회는

“축복의 근원, 섬기는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란 비전을 가지고 지난 32년간 양광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많은 역경과 풍설을 극복하고, 2023년 10월 하나님의 은혜로 모기지를 완전히 페이오프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게 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으로 헌당예배를 드립니다.

이 기쁨의 헌당 예배에 워싱턴 지역의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5월 19일(주일) 오후 4시

장소 페어팩스 한인교회



양광호 목사



최일승 목사



<교회소개>

페어팩스한인교회는(Fairfax Korean Church) 버지니아 Fairfax County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립한인장로교회입니다. 신령한 말씀과 뜨거운 기도, 아름다운 찬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구원 받은 자의 경건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입니다. 성경 중심의 복음주의인 본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처음 오신 한분 한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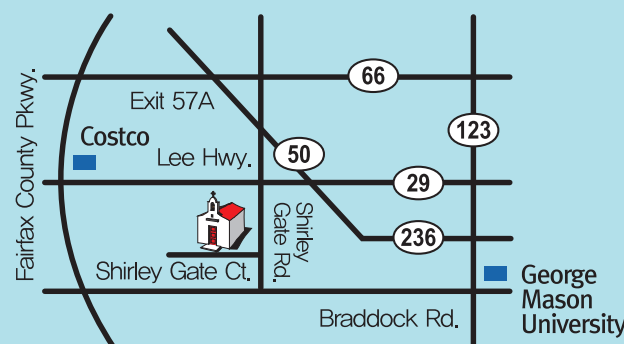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수요찬양예배	수요일	저녁 8시
금요기도회	금요일(격주)	저녁 9시

페어팩스 한인교회

• 동사목사: 양광호, 최일승 • 협동목사: 박승신 • EM Pastor: Kristy Baik

11400 Shirley Gate Ct, Fairfax, VA 22030 703-352-0855, 703-691-4309

www.fairfaxchurch.org



아시아 IT 투자 러시 빅테크, 한국만 패싱

첨단기술 파트너십 지각변동

대만·일본, 정부 지원·보조금 풍부 엔비디아·구글·MS 등 투자 줄이어 성장성 큰 동남아에서도 인프라 확대 “한국, 규제 풀어야 투자 매력 높아야”

“한국만 빼고.”

빅테크 기업이 한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곳곳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협업의 구글’이 자사 하드웨어(HW)를 강화하고 ‘폐쇄의 애플’이 아이폰에 생성 AI ‘젯GPT’를 탑재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며, 설계 자산(IP)을 제공하는 ‘반도체의 스위스’ ARM이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착안하며 첨단기술 업계가 지각 변동하는 가운데 맞이한 현실이다.

최근 구글·아마존·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 기업은 차세대 AI 개발 기지로 동아시아를 짚고 수십조원대 인프라·연구개발(R&D) 투자를 쏟아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은 성장성 높고 비용이 저렴

해서, 싱가포르를 금융 허브로서, 일본·대만은 제조업 역량이 높고 정부 지원이 적극적이어서 선택한다. 그런데 한국만 비껴가고 있다. AI 분업 파트너로서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 국가 차원의 글로벌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지난달 25일 대만 신베이시에 두 번째 하드웨어 R&D센터를 열었다. 13개 층 신사옥에 구글 픽셀폰 연구를 위한 첨단 장비 실험실을 50개 이상 갖췄다. 이곳에서 엔지니어 수천 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팽위진 구글 부사장은 “미국을 제외한 대만이나 구글의 최대 하드웨어 R&D 거점”이라며 “대만 HW팀 인원이 지난 10년 새 20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현재 픽셀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설계·제조를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지만,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와 손잡을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의 엔비디아 AI R&D 센터도 대만에 설립된다. 지난 8일 대만 경제부는 현지 언론에 “R&D센터 공정은 40% 진행됐고, 슈퍼컴퓨터는 지난해 말 설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인 H100 512개로 구성되며, 용량 4분의 1은 대만의 스타트업·연구소에 무료로 제공된다. 대만 경제부는 “R&D센터는 총 1000개 이상 연구 일 자리를 창출하며, 이미 400명이 고용됐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초기 설립·운영비 7억4620만 달러(약 1조2000억 원) 중 28%(약 2820억 원)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엔비디아 R&D센터를 유치했다.

왕메이화 경제부 장관이 엔비디아 미국 본사를 방문하는 등 1년 이상 공

들인 결과다. 앞서 2022년엔 대만 정부가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가려던 엔비디아·AMD의 반도체 물류센터를 대만으로 유치하기도 했다.

올 들어 일본에도 빅테크의 인프라 투자 발표가 줄을 잇는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에, 밀착하는 마일 외교가 힘을 보탤다. 지난달 MS는 내년까지 일본에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를 투자해 AI·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고 도쿄·오사카 데이터센터에 AI 연산용 GPU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발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춰 이뤄졌다. 지난 1월 아마존은 일본에 약 2조3000억 엔(약 20조7190억 원)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는 아마존 한국 투자 계획(약 8조 원)의 2.5배 규모다. 오라클도 지난달 총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투입해 도쿄·오사카 데이터센터를 증축하기로 했다.

기업은 성장성이 큰 동남아에도 한국보다 더 적극 투자한다. 지난 7월 아마존은 89억 달러(약 12조2000억 원)를 추가 투자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강화

하겠다고 발표했고, 애플도 지난달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 원)의 싱가포르 사업 투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MS는 동남아 전역에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금을 뿌리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22억 달러(약 3조3000억 원), 인도네시아에 17억 달러(약 2조34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은 왜 ‘패싱’되고 있을까. 산업계에선 글로벌 AI 산업계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받지만,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양지원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한국은 낮은 조세 경쟁력과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때문에 유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젠스 환 엔비디아 CEO가 이재용 삼성 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미국에서는 만나도, 한국에서 협력할 다른 파트너는 드물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황 CEO는 일본·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을 방문해 정부·기업을 두루 만났지만, 이때도 한국은 빠졌다.

심서현·이희권 기자



구글, TSMC에 러브콜설... 삼성은 ‘자체 AI’ 로 활로 찾기

실시간 번역과 ‘서클 투 서치’(화면 터치로 바로 검색) 같은 최신 AI 기능이 담긴,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가 아니라, 구글의 픽셀8이다. 구글은 AI 기능은 보태고 가격은 내린 보급형 모델 픽셀8a(499달러, 약 67만 원)를 14일 한국 외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성의 하드웨어(HW)와 구글의 소프트웨어(SW)’라는 모바일 시대의 신사협정이 끝나간다. 양사는 2014년 ‘향후 10년간 모바일 특허 공유’ 협약을 맺고 ‘반(反)애플’ 대오를 벌여왔다. 그러나 ‘칩, HW, SW’를 결합해 저전력·고성능 서비스를 구현해야 하는 AI 시대가 되자 파트너십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구글은 새로운 파트너 대만 기업과 손잡고 픽셀폰을 강화했다. 일본에선 이미 갤럭시 판매량을 제쳤다. 삼성은 미국에서 AI 특허를 강화하며 각자도생에 나섰다.

지난달 구글은 기존 HW와 SW 조직을 ‘플랫폼과 디바이스 팀’으로 통합했다. 픽셀폰 담당 임원이 안드로이드·크롬 같은 운영체제(OS)까지 총괄한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컴퓨팅을 발전시키려면

HW, SW, AI의 교차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가 같은 제조 파트너와 역할을 나누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구글의 조직 개편 배경에는 안드로이드 점유율 하락이 있다. 지난 10년 사이 한국 팹텍·LG전자와 일본 교세라·발뮤다 등이 줄줄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안드로이드 진영에는 삼성 외에 샤오미 같은 중국 제조사만 남았다. 미국에서는 애플 iOS(64%)와 안드로이드(36%) 점유

구글·삼성 밀월 끝, AI시대 각자도생 구글, 갤럭시 대항마 ‘픽셀폰’ 띄워 TSMC서 새 휴대폰 AP 생산 검토 삼성, 소프트웨어 독립 본격 추진 중국 ‘하모니’ 앞세워 OS 시장 공략

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진다. 게다가 중국 화웨이의 독립 OS ‘하모니’는 세를 빠르게 키웠다. 지난해 말 하모니는 안드로이드(74%)·iOS(23%)에 이어 세계 모바일

OS 점유율 3위(4%)에 올랐다. 중국 내에선 하모니 점유율(16%)이 연내 iOS를 제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애플과 화웨이가 각각 북미·중국 시장을 장악하니, 구글은 삼성과 경쟁도 불사하며 자사 픽셀폰을 키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픽셀폰의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0.7%로 삼성(6.3%)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미국에서는 애플·삼성·모토로라에 이은 4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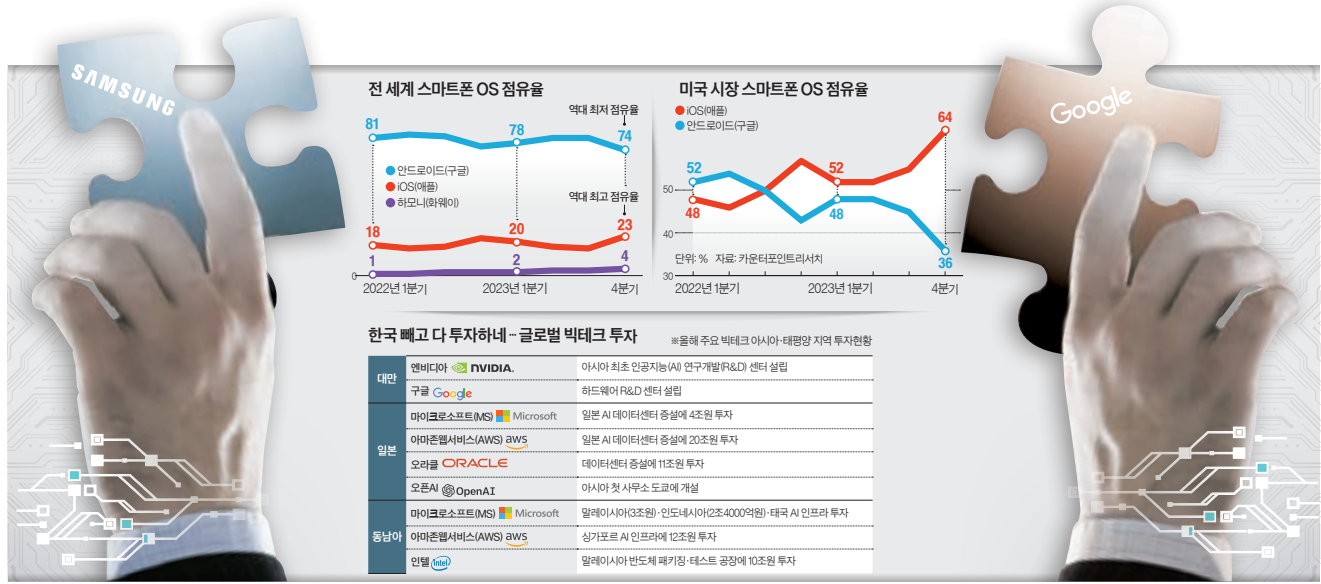
구글은 픽셀폰의 두뇌 역할을 하

는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텐서의 제조 파트너도 삼성 파운드리(위탁생산)에서 TSMC로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2025년 나올 픽셀10 시리즈부터 구글이 AP를 대만 TSMC 3나노미터(nm·1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구글과 협정한 2014년을 기점으로 SW·콘텐츠 개발조직인 미디어솔루션센터(MSC)를 해산하며 기기 개발에 집중했다. 하지만 AI 시대에 구글만 믿을 수 없게 됐다. 삼성은 일부 통·번역 기능을 제외하면 S24 시리즈에 이어 S25 시리즈에서도 구글의 AI인 제미니에 기대야 하는 처지다.

이에 삼성은 자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R&D 조직인 삼성리서치는 2022년 말부터 모바일 경험(MX) 사업부와 밀착해 스마트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그 결과 올해 초 발표된 갤럭시S24에 AI 음성인식 빅스비 일부 기능을 온디바이스 AI(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기에서 작동하는 AI)로 적용할 수 있었다.

심서현·이희권 기자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무료 상담

메디케어 신청

어드밴티지 보험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용산, 라인사태에 “일본 부당조치 땀 단호대응”

“우리 국민·기업 최우선” 첫 입장
네이버엔 “구체적 입장 밝혀야”
야당 “윤 정부, 굴종·굴욕 외교”
용산 “반일 프레임은 국익 훼손”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실장은 “이

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도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며 2차 행정 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라인야후 대주주



네이버 노동조합은 13일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과 관련해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인 A홀딩스 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분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면 적절

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이 사안에 대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좀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라인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사안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다만, 지금까지는 협력 관계를 통해 이뤄졌고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또한 정치권의 조장적 협력을 요청하며 “일각의 반일(反日) 조장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일훈 기자**

네이버 노조 “라인야후 매각 반대”

“기술·노하우 보호가 최우선
정부, 단호하게 대처해달라”

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지분 매각’ 관련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3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성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라인 계열 구성원은 2021년 소프트뱅크와 50:50으로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 비중이 낮은 것을 우려했다”

며 “그럼에도 경영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라인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인의 기술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이라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노조는 “50%의 지분 중 일

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게 된다면 2500여 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인 라인 구성원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돼 고용 불안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매각으로 불안감을 느낀 라인 구성원들의 인재 유출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인야후 계열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 라인파이낸셜, 라인넥스트 직원 수는 총 2500여 명이다.

네이버 노조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요구했다. 이들은 “보안사고 대책으로 지분을 늘리겠다는 소프트뱅크의 요구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부당하다”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기술을 탈취당하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목소리를 (정부가) 내어 달라”고 밝혔다. **김남영 기자**

바이든, 1조3천200억불 투자 성과 자랑... 유권자 체감 못해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제조업과 공공시설 투자 확대를 성과로 내세우는 선거 전략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1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미국구조개혁법(ARP) 등 바이든 행정부의 4대 입법 덕분에 미국에서 추진되는 공공·민간 투자가 총 1조3천200억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는 8천660억달러로 집계됐다.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는 도로와 교량, 항만과 공항, 전기차 충전소 등 기반시설 투자에 4천54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내 제조업을 부양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이런 정책 홍보가 먹이지 않는다는 게 미국 주요 언론의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바이든의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WP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가장 야심 찬 기후변화 대응 입법이라고 홍보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유권자들에게 별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제시한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소(NORC)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17%만 IRA가 미국 노동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24%는 노동자에 피해를 준다고 답했다. IRA가 노동자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이 질문에 응답할 정도로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이 57%에 달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4대 입법을 잘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ARP 11%, 인프라법 14%, 반도체법 9%, IRA 17%에 불과했다.

누가 기반 시설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40%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했지만, 3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WP는 유권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

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표된 투자 계획 다수가 막 시작돼 아직 블루칼라(육체 노동자) 유권자들을 위한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루칼라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공략하려는 계층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앞으로도 블루칼라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고용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며 제조업 일자리의 숫자나 비중에 영향이 없거나 약간만 있을 것”이라고 WP에 밝혔다.

퍼먼 교수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늘겠지만, 정부 투자가 급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보조금이 없는 산업에서는 신규 채용

이 위축되고, 달러의 가치가 오르면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최근 보고서에서 반도체법 덕분에 미국이 세계 첨단 로직 칩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0%에서 2032년 2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일자리는 2030년까지 11만5천개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통해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 증가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폴리티코는 의회가 4개 법 집행을 위해 책정한 예산 1조1천억달러 중 지금까지 17%만 집행됐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투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큰 변화를 느끼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원장/ Benjamin Chun, MD
Brown University BA Degree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친윤 딜레마... '전대 룰' 고치자는데, 유력후보 모두 비윤

여권 내 "당원투표 100% 룰 개정을" 한동훈·유승민, 당대표 선호도 1·2위 성일종 "전대 시기는 7월이 유력"



도서관 찾은 한동훈... 유승민은 대학 특강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서관 목격담과 함께 올라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 왼쪽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연세대에서 특강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3일 정식 출범한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의 최대 현안은 전대 시기와 룰 확정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국민들은 우리가 하루빨리 환골탈태, 쇄신하길 바라고 있다"며 "속히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해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나오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를 배제하

니 당과 민심의 괴리가 커졌다는 지적 때

대 때와 달리, 유력 당권 후보가 비윤 일

색인 점은 이번 전대 룰 개정의 변수다.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 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 발표한 국민 의힘 당 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28%),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6%)이 오차범위 내 1·2위를 차지했다. 두 사람 모두 '비윤'으로 통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한 전 위원장이 가장 앞섰다. 당권 레이스가 현 구도로 지속되는 이상, 친 윤계로서는 룰 개정을 두고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나머지 후보들은 아직까지 두 사람만

큰 존재감이 없다. 뉴스조사에서 나 경원 당선인(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7%)과 안철수의원(7%), 윤상현 의원(3%), 권성동 의원(2%) 등은 한 자릿 수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세롬 기자

정치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한동훈의 '알쏭달쏭 잠행'

원희룡 회동 등 목격담 SNS로 퍼져 "윤 대통령 정계입문 전 행보와 닮아" 여당 내선 '당권 도전' 기정사실화 일각 "총선 참패 사퇴했는데..." 비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알쏭달쏭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도처에서 이목을 끄는 '잠행' 목격담이 흘러나온다.

목격담은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식사 정치다. 한 전 위원장은 12 일 서울 중식당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저녁을 함께했다. 원 전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다고 한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당내 현안이 거론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어 총선 과정에서 영입한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도 조만간 만날 계획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 1달 뒤인 지난달 16일 우군인 비대위원들과 저녁을 함께했고, 지난 3일 저녁엔 자신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과 당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을 시내 모처 중식당에서 만났다. 총선 과정에서 두 차례 갈등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달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과 대비된다.

목격담의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입소문(바이럴)이다. 한 전 위원장 팬클럽인 '위드후니', 디시인사이드 '한동훈 갤러리' 등에 한 전 위

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주요 활동이 연일 중계되다시피 한다. 원 전 장관을 만난 12일 오후 9시 무렵 디시인사이드에 "도곡동 xxx에 (한 전 위원장이) 원희룡(전 장관)이랑 같이 들어왔고, 본 사람 되게 많다. 안 믿으면 관뉘"라는 글이 올라오는 식이다. 자택 인근인 도곡동에서 통화하며 걷는 뒷모습이나, 분홍색 끝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양재오 솔숲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등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의도했던 안 했다 일종의 바이럴 마케팅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 전 위원장이 도서관에서 읽은 것으로 알려진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은 교보문고 국내 소설 일간(12월 기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전날보다 14

계단 급등한 6위에 올랐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책을 봤다는 건,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책 보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도하지 않은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전 그것과 닮았다는 반응이 많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초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이후 그 해 6월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기까지 철저하게 잠행하듯 근황과 생각은 간접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권성동·정진석 의원 등 정치인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나 보훈 관련 유공자 등과의 만남이 모두 목격담이나 전언 형태로 기사화됐다.

한 전 위원장의 노출이 잦아지자 국민의힘에선 그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도 "조기 등판할 경우 집중 공격을 받아 한 전 위원장이 소진되고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만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면 시간을 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에선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드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영남의 중진 의원은 "원톱으로 선거를 이끈 한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대선 패배 후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를 게 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당권-대권 분리' 당헌도 한 전 위원장으로서 선 계약 요소다. 대선에 나서려면 당 대표 임기(2년) 절반가량만 채우고 중도 사퇴해야 하는데,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전 의원이나 경원·안철수·김태호 의원 등도 당헌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기정 기자

윤 대통령, 저출생수석실 신설... "첫 수석엔 워킹맘 찾아라"

저출생부 지시 이어 정책 드라이브 "모친, 양육 위해 교수 사직" 얘기도 여당 새 지도부와 150분 만찬 회동 "108석 소수지만 여당 역할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이어 13일엔 대통령실 내 저출생 문제를 총괄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신임 저출생수석은 워킹맘에서부터 찾아봐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저출생의 어려움을 체감한 여성을 후보군으로 우선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돼 저출산위대응부 신설 업무를 우선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3기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에서 8수석 체제로 늘어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며 1960년대 워킹맘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어머니 최정자 전 이화여대 교수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최 전 교수는 윤 대통령과 동생 윤신원씨 등 1남 1녀를 뒀는데, 일과 양육을 병행하다 결국 일을 그만뒀어야 했다. 윤 대통령은 "나와 내 동생이 어릴 때 많이 아

프다 보니 결국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교수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참 죄송한 생각이 든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갯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을 인용한 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로 약 2시간 30분 동안 만찬과 티 타임을 함께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고, 총선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윤 대통령,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용태 비대위원, 엄태영 비대위원, 황우여 비대위원장. [사진 대통령실]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사전에 준비한 의제는 없었다. 특검 외에도 현안에 대해 두루 이야기 나왔다"며 "대통령이 선

거 후 당과 소통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108석 소수지만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야당 정치인과의 언제든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야당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현일훈·박태안·이창훈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리스버그 싱글홈	레스턴 콘도	로턴타운홈	클립턴 싱글홈
\$1,110,000	\$426,000	\$580,000	\$84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방4, 화2.5, 차고2 새지붕 등 업그레이드 많이함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원내대표·의장·당대표... 경선 사라진 야당 '낙점·옹립정치'

박찬대 이어 추미에 '친명 단일화' 강성당원 뜻 관철, 경쟁없이 추대

추대, 추대, 또다시 추대. 4·10 총선에서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 후보로 나선 조경식·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약속이라도 한 듯 물러났다. 우원식 의원이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이미 당내에선 "명심(明心)이 추 당선인으로 기울었다"는 게 정설이다.

후보 등록 때만 해도 4파전이던 구도는 순식간에 허물어졌다. 친명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경식(5일), 정성호(6일) 의원을 찾아가 사실상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됐는데, 국회의장까지 친명이면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박 원내대표의 설득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민(8일)·김민석(12일) 의원 등

다른 친명계도 SNS에서 추 당선인 공개 지지에 나섰다. 추 당선인도 공공연히 '명심'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13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연히 과열이 되다 보니 우려가 큰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다른 후보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선출 과정도 비슷했다.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자 서영교·김민석·박주만·한병도 의원 등이 모두 출마 의사를 접었다. 친명 강경파들은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해야 한다"(지난달 26일, 민형배 의원)고 분위기를 잡았고, 이 대표도 "의원은 독립된 헌법 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의 한 부분"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대로 뽑힌 건 2005년 1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예방해 박찬대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표 추대 이후 19년 만이다. 다만 정세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친정배 원내대표를 대신해 총대를 멘 성격이 짙었다.

민주당의 추대 정치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굳어지면서다. 이미

친명계 인사들은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엔 총대를 댈 것"(11일 정청래)이라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치료차 휴가 중인 이 대표는 15일 복귀한다. 당 관계자는 "의장 경선과 본인 연임 문제에 대해 이 대표가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야권 내부에도 "강성 팬덤 정치에 건전한 경쟁과 비판이 사라

졌다"는 자조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않는다. 실제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의장 경선을 앞두고 추 당선인을 일사불란하게 지원 사격했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강성 당원들은 이 대표 연임 촉구 서명운동도 하는데, 반대하면 문자폭탄을 각오해야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후보 사퇴한 조경식 의원에 13일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저의 충심을 헤아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연일 거리로 나서는데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20여 명은 13일 오후 1시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해병 특검은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다. 윤 대통령은 즉각 수용하라"고 외쳤다. 이날 회견장에서 추미에 당선인도 찾아 "합내 달라"고 격려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독도를 직접 방문해 '라인야후 사태'를 지적하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정용환·성지원·김정재 기자

박찬대 "25만원·특검 수용을" 추경호 "시간 좀 갖자"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13일 처음 만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의원이라는 평이 많더라"며 "저와도 같이 일하기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고향은 경북과 인천"이라며 "추 원내대표(대구 달성)와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원내수석도 경북-인천 지역이니 숙편하게 이야기하고 동질감을 느낄 것"이라고 화답했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인천 연수갑이 지역구다.

그러나 인사를 마친 박 원내대표는

공정 "시급한 현안을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원)에 대한 추경 편성을 기대하고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총선 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상견례 자리인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갑자기 훅 들어오면 더 이상 대

화가 안 된다"며 "(대화) 정국을 잘 풀어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자"고 제언했다. 그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약 15분의 비공개 대화 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속 터놓고 의기투합했다"고 했고, 추 원내대표는 "식사를 최소 일주일에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엿보인 긴장감은 22대 국회 내내 계속될 갈등과 충돌의 예고편 격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취임 일성으로 "법사위-윤영위는 우리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추 원내대표는 9일 취임 일성으로 "대화하고 타협해 결과물을 만드는 게 협치"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버르고 있다.

강보현 기자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자"... 왕이 "간섭 배제하고 협력하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는 대외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한·중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관계 강화가 한·중 관계 약화 또는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조 장관은 이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상견례를 겸해 50분간 통화했다.

협력에 초점을 맞춰 작은 일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성과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가 양국 수교 32년째라는 점을 언급한 뒤 "30여년 동안 양국은 공동 발전을 성취

했고, 지역의 평화·번영 촉진에 힘을 보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기간 중·한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은 명확히 증가했는데 이는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이 보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이라며 "나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상호 협력의 목표를 견지하고 간섭을 배제한 채 마주 보고 가며, 힘을 합쳐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회담에서 두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이나 윤석열 대

통령의 방중 등 정상 간 교류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박진 전 장관은 중국 칭다오에서 왕 부장과 회담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각기 입장 확인에 그쳤다. 당시 왕 부장의 일정보다 3국 공동 기자회견은 무산됐다. 조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기하고 중국 측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박현주 기자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태국서 한국인 엽기살해... 피의자 1명, 정읍서 긴급체포

지난 9일 귀국, 살해 혐의는 부인
태국 파타야의 한 호수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시멘트로 채워진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었고,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한국인 피의자 3명을 특정하고, 이 중 귀국한 이모(28)씨를 긴급 체포했다. 나머지 피의자 2명 중 1명은 캄보디아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현지시간) 태국 일간지 타이랏(ThaiRath)은 지난 11일 밤 파타야 마프라찬 호수에서 발견된 피해자 A씨

(34)의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려 있었다며 "(신원) 은폐를 위해 자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구체적인 살해 시점과 마약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중 1명인 이모(27)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을 확인했다. 다른 피의자 김모(39)씨의 현지 출국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타이랏은 "김씨가 육로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남성 이모씨를 전북 정읍의 주



지난 11일 태국 호수에서 한국인 시신이 담긴 통이 발견됐다. [태국 데일리뉴스 캡처]

거지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9일 태국을 떠나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살해에 가담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A씨 어머니가 "모르는 남자가 아들 번호로 전화해 'A씨가 마약을 물에 버려 피해를 입혔으니, 8일 오전 8시까지 300만바(약 1억1200만원)를 몸값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을 방문했다. 태국 경찰은 "A씨를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콕의 한 술집에서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3일 오전 2시쯤 한국인 남성 2명이 A씨를 차

에 태우고 파타야 방향으로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태국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량 동선을 추적해, 마프라찬 호수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찾아냈다.
파타야 교민 배모씨는 "피해자가 일당과 만난 후 아이콕은 현지인과 관광객이 모두 많이 찾는 유흥가"라며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민은 "마프라찬 호수는 식수를 끌어다 쓰는 곳이라 낚시를 할 수 없다"며 "운동하러 오는 사람 외에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전했다.
이영근·이찬규 기자

오동운 후보 또 가족 논란... "아내를 법원차 운전기사로 채용"

(공수처장)

재직하 로펌서 5년간 급여 2억 받아 오 "근로계약 체결 뒤 급여 받은 것"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후보자 배우자는 약 5년간 근무하며 2억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 부인 김모씨는 2018년 1월~2019년 10월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차량 운전직으로 일했다.
김씨는 운전직에서 퇴사했다가, 2021년 외근직 실장으로 재입사해 형사사건 기록 복사, 법정 출석, 송무기일 관리, 각종 경조사용 화

환 조화 배송 관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배우자를 채용한 법률상 주체는 로펌"이라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2019년 운전 및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

해 상해 후유증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며 "2021년 재입사 후에는 후보자의 변론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연봉은 재입사 전후 동일하게 5400만원이었다. 반면 실제 출퇴근 시간은 불투명했는데, 김씨의 2018년 근로계약서상 약정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조정"을 전제로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함"으로 적혔다.

오 후보자 가족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장녀는 20살이던 2020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어머니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취득세 절세 의혹도 불거졌다.
오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민 기자



'김 여사에 명품백'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 "이권개입 목격했다"

최 "받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 검찰, 20일엔 서울의소리대표 소환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출석 "내게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통일운동가 출신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의 대통령 권력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의)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이 저에게 목격돼 (취재가) 시작됐다"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명품백을 받은 날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었고,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가기도 백석대 설립자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고급 소나무 분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인터넷 매체 '더탐사'는 "2022년 11월 백석대에서 대통령 관저로 소나무 분재가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장종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 신분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경북경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록 기자, 연합뉴스

백석대 설립자(총장) 측은 중앙일보의 확인 요청에 "알지 못하는 내용"(백석총회 관계자)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형 몰래카

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준비했다. 이 매체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몰카'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에 나설 생각"이라며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은 영상을 근거로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오는 20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이날 최 목사와 동행한 백 대표는 "20일 조사 때는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톡 등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 서너 가지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김 여사 소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소환하는 건 수사 원칙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청탁 금지법상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 반면 금품 공여자 처벌 규정은 있다. 현재까지 정황과 법리로 볼 때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검찰 수사를 "특검 방어용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8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숨졌다. 경찰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채 상병 명복을 빈 뒤 그간 자신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채 상병 소속부대(제7포병대대)장인 이모 중령 등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넘겼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보고서에 결재했다가 하루 만에 지시를 번복했다. 하지만 박정훈 당시 수사단장은 사건을 그대로 경찰에 넘겼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 전 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 자료를 회수해 임 전 사단장을 빼고 다시 경찰로 넘겼다.

김정민 기자, 안동=김정석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자이언트 부동산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능,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우리말 바꾸기

‘물렀거라’ ‘물러가라’?

다음 중 올바른 표기로 이루어진 것은?
 ㉠ 물렀거라-게 섰거라
 ㉡ 물러가라-게 섰거라
 ㉢ 물렀거라-게 섰거라
 ㉣ 물러가라-게 섰거라

사극을 보다 보면 벼슬아치가 행차할 때 맨 앞에서 길을 내는 길잡이가 행차를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간혹 볼 수 있다. 그가 “물렀거라(물러가라)” “게 섰거라(게 섰거라)”라고 외치면 백성들은 옆으로 비키면서 머리를 조아린다. 이때의 “물렀거라(물러가라)” “게 섰거라(게 섰거라)”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 소리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답은 ㉣ 물러가라-게 섰거라이다. 무엇이 줄어든 말인지 생각해 보면 된다. “물렀거라”는 “물러 있거라”, “게 섰거라”는 “게 서 있거라”의 준말이다. 받침을 ‘ㅅ’으로 적지 않고 ‘ㅆ’으로 적는 것은 “물러 있거라”에서 준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본딴말의 ‘있’에 쓰인 받침 표기가 줄어들어 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요즘은 “추위야 물렀거라” “치매 물렀거라”, “물러가 게 섰거라” “챗GPT, 게 섰거라” 등처럼 비유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 말이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원리가 적용된 말에는 “옳다” “옳소” “옳습니다”도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푸틴 등극과 트럼프 리스크 겹치면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푸틴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가로 추켜세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의 방산 제품 수출이 늘어나자 김정은이 직접 탱크를 몰면서 북한산 존재를 과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핵기술, 탄도미사일, 그리고 탱크로 대표되는 재래식 무기의 고도화는 한국 안보의 위협요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푸틴과 시진핑의 경쟁적인 지원이 이어진다면 김정은의 ‘한반도2 국가론’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한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관계가 반드시 평탄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현재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안보 체제는 중대 시련을 맞을 개연성이 높다.

한국 안보 비용을 한국이 전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트럼프 캠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데뷔시킨 첫 번째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재로 열린 싱가포르, 하노이 김정은-트럼프 회담은 그때까지 ‘은둔의 지도자’였던 김정은이 처음으로 베일을 벗은 순간으로 기록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문을 제창한 푸틴은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두 번째 인물이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어 ‘트럼프 다운 정치’를 펼치고 ‘선출

된 차르’ 푸틴이 맞장구를 치는 상황극이 연출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반해 중국은 최악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G7을 중심으로 서방의 경제제재가 강화되자 러시아는 중국, 인도 등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 중심으로 교역을 강화, 2023년 국내총생산(GDP)이 3.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은 시진핑이 내세웠던 ‘소비 주도 성장’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맞았으며 탈출구로 ‘중국 경제 광명론’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울 정도다. 러시아 경제 성장률도 중국경제의 내리막은 러시아 경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두 강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그 탈출구를 어디서 찾을지 가능하기 쉽지 않다. 다만 탈출구의 하나로 북한카드가 등장할 수도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변수는 푸틴이 결과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불러 노르딕 벨런스가 무너졌고 발트해 역시 러시아의 바다가 아니라 ‘나토의 호수’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강성 종북 세력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원내 진출이 사실상 보장된 점을 생각한다면 가슴이 서늘해짐을 금할 수 없다.

푸틴 리스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트럼프 리스크만은 사전에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포석을 강화해야 한다. 그 첫 걸음으로 국회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강성 종북세력에 대한 한국 국민적 감시 능력 강화가 시급함을 알아야 한다.

디지털 세상 읽기

한 전기차 기업의 곤경



박상현
 오토레터 발행인

형 있는 리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글의 임원이 “세계 최고의 테크 리뷰어”라고 극찬을 한 적도 있다.

그런 그가 피스커의 신차를 두고 “내가 리뷰해 본 차 중 최악의 차”라고 말하면서 인터넷에 큰 화제가 되었고, 회사의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스커는 이미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았

고, 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의 성공이 절실했다. 그렇게 중요한 신차가 곳곳에 문제점이 가득한 채로 나왔으니 단순히 인플루언서의 탓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브라운리는 이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자기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리뷰어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했고, 제품의 문제를 정직하게 지적하는 것이 리뷰어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혹평을 접한 피스커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일부 해결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기차가 처음 등장하던 시절에는 제품의 문제가 있어도 소비자들이 너그럽게 봐주지만, 이제 치열한 경쟁터가 된 전기차 시장은 그런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기업 피스커는 2007년에 설립됐다. 당시만 해도 테슬라는 존재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합류하기 전이었고, 전기차 시장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작아도 꾸준한 관심을 모아온 회사였지만, 테슬라가 크게 히트하고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면서 점점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근래 들어 절치부심하고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며 다시 관심을 끄는 듯했다.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모델이 유명 인플루언서의 혹평을 받은 후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얼마전 직원의 15%를 내보내며 파산의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문제의 리뷰를 한 인플루언서는 마르케스 브라운리라는 인물로, 전자 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균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SK PEST Management LLC

BED BUG more ▶ www.sk-pest.com

빈대퇴치! ELIMINATE!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571-992-5789

skpmva@gmail.com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윈더플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마감 임박**
 자연이 만든 웅장한 알프스와 환상적인 자연을 품고 있는 스위스일주
8박 9일 6/18~6/26 \$3,990+항공

캐나다 록키 \$2,290(항공포함)
5박 6일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마감**
 8/14~8/19 (여름방학 특선)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엑스트빙하 모두 볼 수 있는 기회!
6박 7일 8/15~8/21 \$2,990(항공포함)

영국일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11박 12일 9/2~9/13 \$5,890+항공

정통 서유럽 \$3,490+항공
10박 11일 9/10~9/20 **마감 임박**
 10/9~10/19 **마감 임박**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9/18~10/1 \$4,390+항공

파노라마 서유럽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 13일 9/20~10/2 \$3,890+항공

그리스 & 터키 *산토리니 옵션
 지중해의 핵심 두 나라 그리스와 터키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
10박 11일 9/25~10/5 \$2,890+항공

독일 일주
 괴팅,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 14일 10/3~10/16 \$5,690+항공

윈더플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고 윤태웅

5월의 추천투어 북유럽 4개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 11일 6/28~7/8 \$5,290+항공

특전
 1. 헬싱키-스톡홀름 구간 발트해 실아라인 크루즈 포함
 2. 도심에 위치한 호텔 투숙으로 유식과 자유시간 만끽
 3. 게이랑에르 유람선 & 낭만의 플름 산악열차 모두 포함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5/21~6/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5/24~5/27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6/04~6/1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5690+항공
 6/18~6/26 스위스 알프스 8박 9일 \$3990+항공 **마감 임박**
 6/18~6/28 고품격 고국일주 2차(영어가이드) 10박 11일 \$2990+항공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마감**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마감** 인사이트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임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 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마감 임박** 10박 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마감 임박**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마감 임박**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마감** 10박 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트)

10/22~10/31 터키 성지순례(소아시아 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 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 11일 \$3590+항공

11/12~11/25 아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 14일(시내선)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 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트)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탑여행사가 직접 모시고 떠납니다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렉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안원마을 라안호텔 / 여수 소노캣 / 가제 소노캣 부산 크린조션 / 경주 라안호텔 / 속초 롯데호텔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요일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요일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일요일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요일

동남아 여행
3박 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 5일** 대안 \$499+항공
3박 5일 푸켓 \$599+항공 **3박 4일** 대안 \$690+항공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 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 4일 동경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원세종병원(세세대형/전체검진)

메모리얼 데이 특선

나이아가라 워터스글렌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행복 느낄 수 있는 여행!
 미동부의 그랜드캐년, 레지워스 주립공원 북아메리카 최대규모의 나이아가라 폭포(안개수축탑승)
2박 3일 5/25~5/27 \$650

뉴욕 특선
 업그레이드된 디렉스 호텔, 브루클린 명소, 배스 허드슨 아드, 옛지 전망대 **스타이브 특선**
1박 2일 5/26~5/27 \$450

미동부 **뉴욕 특선**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성/몬트리올/퀘벡 플라즈버그/뉴욕
5박 6일 \$1350 **일매주 출발**
 대형버스 출발: 6/24, 7/22, 8/5

뉴욕 천성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3박 4일 \$899 **일매주 출발**
 대형버스 출발: 7/8, 9/23, 10/21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450+항공 **일매주 출발**

성극 대니엘 \$199
 5/16, 5/30, 6/13, 7/11, 8/1, 8/22, 9/19, 10/17, 11/14

뉴욕 동부 명소 핵심 방문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호텔 숙박
2박 3일 \$650 **일매주 출발**
 대형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1박 2일 \$399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일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일매주 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일매주 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Tuesday, May 14, 2024 C

냉·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소
임종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세계적 기업 CEO 꿈꾼다면 도전 할 만

경영대학원(MBA)와 순위
한인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법대와 의대로 편중된다는 지적이 한인 언론들에 단골 소재로 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이민자들의 가정이 다 보니 사회적 성공보다는 물질적인 성공이 생존에 더 중요했던 시절이다. 이제는 유명 경영대학원(MBA)에도 눈길을 돌려보면 좋겠다. US뉴스의 명문 경영대학원 순위를 알아봤다.

로 순위를 매겼다. 우선 취업률이다. 풀타임 학생 중 졸업시 취업률(7%)과 졸업 후 3개월내 취업률(13%)을 중시했다. 또한 연봉 요소를 넣었다. 평균 초봉과 보너스(20%), 직업별 연봉(10%) 등을 고려했다.

US뉴스 순위의 가장 큰 장점인 평가 점수가 들어간다. 자기 학교 직원이 자기학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한 학교 관계자들의 평가(12.5%)가 산정 요소에 들어간다. 또한 기업체의 채용 담당자의 평가(12.5%)가 적용된다.

졸업 후 취업, 연봉 등으로 순위 작성 스탠포드와 유펜이 굳건한 공동1위

이민자로 창업해 성공한 기업을 이뤘던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5세나 2세들이 경영대학원에 진학해 대기업의 수장에 오른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인도계가 주요 대기업들의 CEO에 오른 경우가 무척 많은 것과 비교해도 그렇고 의대나 법대를 통해서 성공한 한인 자녀들의 사례에 비해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

대학원 순위는 학생이 지원할 때 유일한 결정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순위는 예비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학업의 질과 졸업생의 성공률을 평가한다. 그러나 위치, 캠퍼스 문화, 특정 프로그램의 강점, 학비 및 재정 지원 후 비용 등이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순위의 총 25%에 해당하는 3가지 입학 지표가 들어간다. 우선 GMAT 및 GRE 점수 중앙값(13%), 입학생들의 학부 평점 중앙값(10%), 아울러 합격률(2%)이다. 합격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문 경영대학원을 나오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100미터 달리기라고 하면 출발점에서 50미터 쯤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한인 자녀들처럼 똑똑하고 올바른 인재들이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한인 CEO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의대나 법대만큼 학부모들이 성원했다면 더 많은 성취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인 사회는 훌륭한 CEO의 배출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커리어 전문가들의 조언이 의미 있게 들린다.

한편 US뉴스는 인기 있는 13개의 독립형 전공 순위를 발표했다. 경영대학원의 광범위한 MBA 프로그램 학위에 대한 학점을 부여하는 교과 과정을 통해 제공된다. 다시 말해,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순위는 회계학 석사나 프로젝트 관리 석사 학위와 같이 완전히 전문화된 비즈니스 석사 프로그램은 평가하지 않았다. 순위가 매겨진 MBA 전문 분야에는 회계, 비즈니스 분석, 기업가 정신, 재무, 정보 시스템, 국제 비즈니스, 경영, 마케팅, 비영리 경영, 생산/운영, 프로젝트 관리, 부동산 및 공급망/물류 관리 등이 포함된다.

경영대학원은 석사 과정 이상으로 개인이 풀타임으로 다니는 경우와 달리 기업체가 학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나 회사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과정을 마치는 경우가 있다. **장병희 기자**

◆순위의 의미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하면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력 기회를 알게 되고 승진 및 승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순위 공식의

◆순위 선정 방법
US뉴스는 9가지 순위 요소에 따라 점수를 매겨 각 학교의 전체 순위를 도출했다. 점수는 표준화돼 다른 학교의 평균 및 표준 편차와 비교됐다. 표준화된 수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산한 후 재조정하여 최상위 학교는 100점을, 그 외 학교는 최상위 점수의 백분율을 받았다.
최고의 경영대학원의 일부로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교 중 총 339개 학교가 통계 조사에 응했다. 124개 경영대학원을 대상으로 각 해당 순위 지표에 맞는 졸업 후 취업 성공 데이터

2023년 경영대학원 순위

순위	학교명	소재지	연학비(\$)/학생수/GMAT평균
공동 1위	스탠포드	CA	79,860/873/738
	유펜(와튼)	PA	79,800/1,754/728
공동 3위	노스웨스턴(헬로그)	IL	81,015/1,442/731
	사카고대(부스)	IL	80,961/1,307/728
5위	MIT(솔론)	MA	NA/817/728
6위	하버드	MA	74,910/1,953/NA
공동 7위	NYU(스텐)	NY	84,180/639/732
	UC버클리(하스)	CA	69,814(82,059)/509/733
공동 10위	예일	CT	82,200/718/723
	다트머스(터크)	NH	77,520/580/726
공동 12위	버지니아주립(다들)	VA	72,060(74,378)/700/717
	컬럼비아	NY	84,496/1,512/733
공동 15위	듀크(매켄)	NC	75,000/787/716
	미시간주립 엔아버(로스)	MI	70,392/734/719
공동 16위	코넬(존스)	NY	79,910/577/700
	카네기멜론(테피)	PA	75,712/359/705
공동 18위	텍사스주립 오스틴(맥콤)	TX	51,238(56,814)/454/704
	에모리 (고이주에타)	GA	71,900/237/709
공동 20위	USC(마샬)	CA	76,131/384/722
	인디애나주립 (켈리)	IN	28,992(54,602)/219/685
공동 24위	UCLA(앤더슨)	CA	74,618(74,618)/610/709
	노스캐롤라이나 주립채플힐스 (켄-플래글러)	NC	50,109(67,921)/495/696
공동 25위	밴더빌트(오넬)	TN	68,500/306/687
	조지아텍(셀라)	GA	64,600/497/695
공동 26위	워싱턴대 세인트루이스(올리)	MO	29,508(40,752)/145/690
	워싱턴주립(포스터)	WA	66,200/170/696
공동 27위	조지아주립(테레)	GA	13,578(32,606)/110/668
	워싱턴주립(포스터)	WA	38,889(56,727)/210/702
공동 29위	라이스(존스)	TX	69,000/307/695
	오하이오주립 (피셔)	OH	30,231(57,960)/98/689
공동 30위	노터데임(벤도사)	IN	67,660/238/687
	에리츠나주립 (WPK레리)	AZ	29,376(51,290)/115/699
공동 32위	로체스터(사이먼)	NY	52,500/196/675
	서던메소디스트 대(루스)	TX	48,394/134/693
공동 34위	텍사스주립 워싱턴(칼슨)	MN	43,640(55,920)/154/658
	폴로리아주립 (워링턴)	FL	12,737(30,130)/57/669
공동 35위	브링엄(메리엇)	UT	15,076/207/668
	델라웨어(델라)	TX	15,309(30,054)/83/690
공동 37위	유타주립 (엘레스)	UT	34,000(35,000)/68/650
	윌링엄(드메리)	VA	37,632(49,470)/190/650
공동 38위	메이슨	VA	37,632(49,470)/190/650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MD 자이언트 No. 1 에이전트**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김상현의 과학 산책

직관의 자유

“벌써 리허설 시간인가요. 내 곡이 뭐였죠. 드보르자크인가요?” 그리고는 드보르자크를 연주해요. ‘아니면 엘가인가요?’ 하며 그 곡을 연주하죠. 뭐든 상관없었어요. 재키는 마치, 곡을 다 알고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영국의 첼리스트 재클린 뉘프레(1945~1987)에 대한 한 음악가의 회상이다. 19살 뉘프레는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녹음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해석한 엘가에 매료됐다. 음반사 그라모폰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세 명의 첼리스트 중 하나로 그녀를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뉘프레와 친밀하게 교류했던 여러 음악가는 “작곡을 해 나가면서 연주하는 것 같다”고 그녀의 재능을 극찬했다. 뉘프레의 마음에는 음악이 가득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손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뛰어난 수학자에게서 ‘직관의 자유’를 목격한다. 나이테처럼 압축된 결과를 보자마자 이해하는 능력이다. 마치 그 정리를 알고 태어난 사람 같다. 심지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추측해 내기도 한다. 그들의 직관은 상상의 나래만큼이나 자유롭지만, 천체 망원경보다 정확하다. 미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바로 길을 떠올리고, 지름길만 찾아다니는 걸까. 대가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그들 역시 모든 시행착오를 다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다. 놀라운 성실함으로 말이다.

논문에 남긴 내용은 그들 생각의 깊이와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들 생각의 하점, 빈틈으로 보였던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 틈새에 깊고 깊은 사고의 조각들이 담겨있다. 생각의 깊이를 속일 수 없어 주어진 그릇에 넘쳐흐를 뿐이다. 안타깝게도, 뉘프레는 젊은 나이에 다발성 경화증으로 투병을 시작한다. 마지막 연주에서는 손의 감각을 잃은 채 시작만으로 운지를 한다. 흠뻑 앓았을 그 연주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값진 노력으로 얻어진 자유는, 그 자유를 가졌던 사람의 이야기는, 이 땅에 남은 이들에게 오랜 영감으로 남고 있는 한다.

고등과학원 수석부 교수

교육과 뱀목 버리기

뉴턴 역학 뛰어넘은 현대 물리학 기존 틀 벗어난 개념으로 시작돼 강을 건너 뒤에는 뱀목을 버리듯 새로운 사고력 키우는 것이 교육

편 공간이 다른 전하에게 힘을 작용한다. 질량도 전하처럼 공간을 변화시킨다. 지구가 중력장을 만들면서 공간을 바꾸면, 이 바뀐 공간이 물체를 지구로 끌어당긴다. 이에 의하면 이 순간의 태양이 지금의 지구를 끌지 않는다. 8분 전의 태양이 공간을 변형시켰고, 그 변형된 공간을 따라 지금의 지구가 움직인다.

뉴턴의 우주에서는 물체가 진공 상태의 공간을 떠돌아다닌다. 공간은 물체가 놓여있는 장소이지만, 물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을 그리려면 화폭이 필요하듯이, 물체가 머무는 장소로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화폭이 있는 것처럼,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공간은 있어야 한다. 우주의 구성이나 배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펼쳐지는 이 공간을 절대공간이라고 한다. 패러데이에서부터 이 고전적 우주관에서의 탈출이 시작됐다. 물체가 전기장이나 중력장을 통해 공간을 변화시킨다는 혁명적인 세계 이해가 시작됐다. 이는 아인슈타

인을 거치면서 확고해졌다. 일반상대성이론은 질량이 뿜어내는 중력장이 시간과 공간을 휘게 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줬다. 이로써 존재자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절대시간이나 절대공간은 성립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뉴턴이나 패러데이나 아인슈타인은 과학사에서 겨우 몇 번 있었던 인상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만 본다면 교육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업적은 가르침을 잘 계승하기만 한 것으로는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본공으로 일했던 패러데이는 초보적인 정규교육만 받았다. 아인슈타인도 학교 성적은 우수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사례만 보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존의 배경지식이 없다면, 모든 과학자는 그리스의 소피스트 수준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몰두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남들과 달리 독창적으로 사고하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담한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배경지식은 갖춰야 하지만, 그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의 비유를 빌리면, 강을 건너고 나면 뱀목을 버려야 한다. 뱀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뱀목에서 벗어나야

신세계가 열린다.

신세계를 열기 위해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법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 보이지만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원리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된다. 반도체 공정의 첨단기술은 6개월이면 달라지지만, 양자역학을 비롯한 작동의 기본 원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기를 갖추고 독창적으로 사고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상황에 폭넓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창의성이다.

이는 패러데이나 아인슈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 반도체 공정의 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공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이룩해야 할 작은 진보라 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진보와 같다.

지붕에 오르려면 사다리가 필요하지만, 사다리에서 벗어나야 지붕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나 그렇다. 더구나 이는 과학기술뿐 아니라 학문과 예술의 전 영역에서 그럴 것이다. 교육은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면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진보의 추동력을 키워줘야 한다. 최신 공정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공정을 찾아낼 수 있는 사고의 힘을 키워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 1번 'MBA'에서 이어집니다

◆경영대학원 순위

40위권 순위에 들어가는 훌륭한 경영 대학원은 상당수가 모두 지역의 거점 대학이기도 하다. 학부 순위와는 다르게 한 지역에 몰려 있지 않다.

우선 공동1위는 스탠포드와 유엔이다. 동서부에 한 곳씩 자리하고 있고 그 중간인 시카고에 공동3위인 노스웨스턴과 시카고가 있어 눈에 띈다. 이어서 매사추세츠에 MIT(5위)와 하버드(6)가 있다. 예전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정상을 달렸던 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평준화 아닌 평준화가 된 셈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북가주의 스탠포드 이외에도 UC버클리(하스, 7위), 남가주는 UCLA(20위)와 USC(18위)가 마치 지역 기업계를 지키고 있는 듯 우뚝 서있다.

뉴욕도 NYU(7위), 컬럼비아(12), 코넬(15)이 지키고 있으며 텍사스도 텍사스 주립 오스틴(16), 라이스(29),



미국의 명문 경영대학원 중 가장 많은 재학생수를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모습. 연간 7만4910달러의 학비에 재학생 숫자는 1953명에 달한다. (flickr.com=Florian Pilz)

서던메소디스트(34), 텍사스 주립 델라스(38)도 비슷한 경우다.

경영대학원은 주립대학들에도 인기가 있다. UC버클리는 물론, 버지니아 주립(10), 미시간 주립 앤아버(12), 인디애나 주립(20), 노스캐롤라이

나 주립 채플힐(20) 등이 있다. 다만 UCLA(앤더슨)는 왕년의 톱10에 들었던 인기 학교답게 거주 학생과 타주 학생의 학비가 동일해 눈길을 끈다.

학생 숫자로 보면, 하버드 1953명을 선두로 유엔 1754명, 컬럼비아 1512명

, 노스웨스턴 1442명, 시카고 1307명으로 1000명이 넘었는데 이는 마치 명성, 순위가 학생 숫자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많다는 것은 동창생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간 학비로 따져보면, 컬럼비아가 8만4496달러로 수위였고 NYU가 8만4180달러, 예일 8만2200달러, UC버클리(타주생) 8만2059달러, 노스웨스턴 8만1015달러, 시카고 8만961달러로 8만 달러가 넘는다. 이들을 이어서 스탠포드(7만 9860), 코넬(7만9910달러), 유엔(7만8600)으로 이어진다.

가장 저렴한 곳은 플로리다 주립으로 1만2737달러, 조지아주립 1만3578달러이고 브라운(1만5076), 텍사스 주립 달라스(1만5309)가 1만달러 대를 이루고 있다. 대개의 학비는 지역별 물가와 유사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구독 신청 703-281-9660

보험 에이전트 모집입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일본군, 청과 싸우기도 전에 경복궁 담부터 넘었다

(조선전보총국 장악)

130년 전 갑오년은 조선 정부 최대 수난의 해였다. 연초에 전라도 동학 농민군이 전봉준의 지휘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탄압을 성토했던 끝에 5월 전주 감영을 점거한다. 동학 농민군은 일본뿐 아니라 청나라에 대해서도 저항의 깃발을 들었다. 청나라 상인들이 위안스카이 위세를 믿고 국내 장시를 휘젓고 다녀 보부상까지 동학군 쪽에 가담하였다. 임오군란 때부터 국왕을 괴롭히던 위안스카이는 병조판서 민영준에게 청나라에 농민군 진압을 위한 군대 파견을 요청하도록 했다. 농민군의 반청(反淸) 기세를 꺾어 기울어가는 영향력을 만회해 볼 속셈이었다.



1 일본 히로시마 대본영의 현역 최고위 참모차장 겸 병참총감 가와카미 소로쿠(1899년 사망). 김문자 『조선왕비 살해와 일본인』. 2 1894년 7월 23일 경복궁을 침입한 일본군. 멀리 2층 관문각(양관)과 시계탑, 그리고 그 앞쪽에 신문문이 보인다. 일본군 중군 화가 구보다 히센 그림. 『일청전쟁투화보』 제1편 필자가 2003년 후쿠시마 현립도서관에서 입수했다.

[사진 태학사·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일본군, 청나라 군대보다 먼저 인천 도착
서울의 일본 공사관은 민영준의 심복 안경수를 매수하여 위안스카이·민영준과 조선 정부 사이의 설왕설래를 매일 저녁 보고 받으면서 상황을 주시했다. 필자는 2000년 일본 공사관(현 대사관) 측의 그 탐문 기록을 조사해 조선 정부가 동학 농민군 봉기를 보고 두려워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자진 청병설’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조선 정부는 위안스카이의 강요를 네 차례 거절 끝에 부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달았다. 동학 농민군이 움직이지 않으면 청군은 상륙하지 못하며, 상륙하더라도 도성 500리 안은 들어오지 못한다.

미 소로쿠는 오시마 여단 출동 후 따로 병참대를 조선에 보내 부산-충주 육로 요지에 병참 부대를 배치하였다. 병참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개설된 조선의 전신선을 장악하고 필요한 곳에 군용 전신선을 추가 시설했다. 청나라와의 일전을 위한 통신시설 장악 작전이었다.

통신시설 장악이 완료된 후 7월 23일 자정 효창원의 일본군은 서울 도성을 포위하고 1개 대대가 경복궁 담을 넘어 광화문의 빗장을 안에서 열었다. 궁성 수비대는 침입군과 새벽 7시까지 싸웠으나 역부족으로 경복궁을 일본군에 내주었다. 앞서 6월 28일에 국왕 고종은 미국 워싱턴 주재 이승수 공사에게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에 타국이 한 나라의 정부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면 서로 돕는다고 한 약속에 근거한 요청이었다. 조선으로서는 전신 시설을 이용한 국제 협력 외교 시도였다. 전신을 통한 조선 국왕과 미국 정부의 접촉을 간파한 일본군은 왕궁의 조선 전보총국을 장악하기 위해 경복궁 담을 넘었다. 이틀 뒤 7월 25일 일본군은 성황 주둔 청나라 육군과 풍도 앞 해군함을 공격하여 청일전쟁을 시작했다. 일을 크게 벌여 구미 열강의 간여를 배제할 셈이었다.

1895년 4월 일본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조선 정부는 ‘내정개혁’ 강요에 시달렸다. 이해 1월 일본 정부는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조선 정부에 미국 워싱턴 주재 공사관의 업무를 일본 공사관에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청나라 퇴치 후 조선을 저들의 보호국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미국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일본 정부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일본 정부는 이를 철회하였다. 뒷날을 기약한 후퇴였다.

정부뿐 아니라 백성이 겪은 고통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일본군의 전신 시설 관리 구축에

스스로 나서 항전하던 수많은 동학 농민군이 대규모로 학살당하였다. 전후에 일본군의 완전 철수 문제를 놓고 벌어진 마찰로 왕실은 왕비가 살해당하는 참변을 겪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은 일본 군부의 은폐 공작으로 한 세기 이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진실 은폐 속에 생긴 역사 왜곡은 한풀이 아니었다. 조선 관군이 농민군 진압에 앞장섰다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1990년대부터 양심적인 일본 역사학자와 재일교포 여류 사학자들이 일본 군부가 숨긴 자료를 찾아내 은폐의 장막을 벗기기 시작했다.

나라여대 나카쓰카 교수, 진실 발굴 선봉

나라여자대학의 나카쓰카 아키라 교수가 진실 해명의 선봉장이었다. 그는 1997년 『역사의 왜곡을 바로 잡는다』(일문)를 세상에 내놓았다. “전사(戰史)에서 소멸한 일본군의 ‘조선왕궁 점령’이란 부제가 붙었다. 앞에서 서술한 오시마 여단의 경복궁 침입 사건이 바로 이 책이 밝힌 역사의 진실이었다. 나카쓰카 교수는 1994년 후쿠시마 현립도서관 ‘사토 문고’에서 800자짜리 원고 100매가 넘는 분량의 『일청전사(日淸戰史)』 초안 일부를 발견하였다. 청일전쟁 100년이 되는 해였다. 1904년 육군참모부가 간행한 『메이지 27-8년 일청전사』 앞부분에 들어갈 원고였다. 참모부가 이 책을 내면서 10년 전 ‘조선왕궁 점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빼버린 원고가 여기 남아있었다.

나카쓰카 교수의 제자 김문자는 2009년 『조선왕비 살해와 일본인』(일문)을 출간하였다. 1895년 4월 종전 후 일본 측은 ‘삼국간섭’으로 라오동반도를 포기하면서 권토중래를 위해 한반도 전신 시설 관리를 위한 일본군의 잔류를 희망했다. 그러나 조선 국왕(고종)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비상사태를 일으켜 일본군이 대거 서울로 들어가 전일 정권을 세우 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비상사태란 것이 바로 ‘왕비 살해’였다. 이 희대의 만행도 참모차장 가와카미 소로쿠가 지시한 것이었다. 방위청(국방부에 해당)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10년간 쏟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또 하나의 진실 발굴이었다.

훗카이도 대학 이노우에 가쓰오 교수 또한 1997년부터 갑오 동학 농민전쟁과 일본군의 탄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일본 근대사 전공이었으나 재직 대학 자료실에 보관된 “동학 농민군 지도자로 추정되는 두개골”에 쫓힌 의문을 풀고자 방위연구소 도서관으로 갔다. 그의 업적 가운데 2010년에 발표한 ‘동학 농민군 포위결말 작전과 일본 정부·대본영’(『思想』 1029, 일문)은 가와카미 참모차장의 지휘로 부산-충주 연로에 병참 부대가 배치된 사실을 다루었다. 충청도 동학 농민군 2만은 일본군 병참대의 움직임을 확인한 뒤 10월 16일 일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히로시마 대본영의 가와카미 참모차장은 대대 병력을 증파하면서 ‘모조리 살육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 11월 하순 공주 우금치 전투 20여 일 전이었다. 일본군 토벌대는 동학 농민군을 소백산맥 이남으로 몰아 전라남도 장흥, 해남, 진도 일원에서 섬멸하였다. 이노우에 교수는 농민군 5만 명이 사망한 이 사건을 일본군 ‘제노사이드’로 규정하였다. 2002년 한국 유학생 강효숙이 같은 주제로 전국적 상황을 정리했지만, 이노우에 교수는 충청도 농민군 항쟁이 그 상황 전개의 핵심인 것을 파악해 냈다.

청일전쟁 중에 은폐된 ‘진실의 역사’는 당대 역사의 성격을 바꾸어 놓을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침략주의에 맞서 싸운 역사가 빠뜨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시대에 관한 지금까지의 해석이나 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한국내외 관련 연구 성과를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5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시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임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Financial Aid 신청시 가족과의 상관 관계

▷질문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자금 보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결혼한 상태로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Financial Aid를 신청해 주면 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신청 절차나 방법에 대해 한번쯤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상태이면, 최근 1년 동안 학생을 누가 보살펴 왔고 학생이 어느 부모의 세금 보고에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대부분 학생을 보살피고 있는 부모의 세금보고에 학생이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 재정보조를 신청할 때 보살피는 부모 한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한다. 만약 이혼 후 학생이 의무(또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의무(또는 계모)의 소득과 재산도 재정보조 신청에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친부(친모)의 소득과 재산은 재정보조 신청에 관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최근 들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Finan-

cial Aid의 한 단면을 이것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들과 몇몇의 주립대학들은 FAFSA 신청 이외에 CSS Profile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신청서 안에는 Non-Custodial Parent (이혼 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별도의 Non-Custodial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낳은 아이의 학자금을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는 자녀의 학비 문제를 이혼 조건의 한 조항으로 삼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사립대학들은 이곳에 명시된 학비 조달 약속 금액도 Financial Aid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부모가 이혼한지 오래되어 전혀 왕래가 없거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Financial Office에 자세히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인 가정의 경우 실제적으로 이혼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으로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돌아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상황적 설명을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재혼하여 의무(또는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가 친부(또는 친모)가 사망하고 친모(또는 친부)가 그 학생을 돌보지 않게 되면 이때 의무(또는 계모)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며 학생은 독립인으로 간주된다.

▷ 질문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양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에 학자금 보조 신청은 어

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 중 한명이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포함된다. 만약에 부모가 합동으로 이미 소득세 신고를 했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분리해서 학비 재정보조를 신청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분이 독립인 (Independent Student)으로 변하므로 이에 준해 재정보조를 신청하면 된다.

양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양부모(Adopted Parents)도 친부모와 같이 취급한다. 즉, 양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Financial Aid 신청에 반영된다.

그러나 위탁부모(Foster Parents)는 실질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의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탁양육 부모의 소득과 재산은 학비 재정보조 신청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적 보호자(Legal Guardian)와 살고 있는 경우는 법적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이 학비보조 신청에 들어간다. 그리고 보호자의 배우자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 상담을 하러 오신 학생의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서류상으로 이혼관계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문의하신 적이 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부부가 이혼 관계이면 학비 재정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오신 것이다.

일 년에 8만불이 넘는 대학 학비와 어떤 방법이든 재정 보조를 더 받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는 했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당국이 학생의 학비 재정 보조를 유리하게 주지는 않고 있으며 추가 서류를 통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통한 각 가정의 가족 관계에 맞는 Financial Aid Planning 과 신청이 필요하다.

▷문의: 703-576-7803,

Email: topedupia@gmail.com

높은 내신·지적 호기심·구체적 활동...올해 아이비리그 합격생의 공통점

에듀 포스팅

2024년의 모든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입학률 등의 자료는 대부분 대학들이 발표했지만, 그 외의 세밀한 자료들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한인 학생들을 위주로 공통점을 찾아보았다.

다른 인종의 학생들보다 어퍼머티브 액션 페지 이후의 정확한 데이터가 궁금하긴 하지만 우선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한인 학생들을 위주로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1. 높은 GPA와 경쟁력 있는 클래스 선택

가장 기본적인 숫자인 성적은 대학 입시의 첫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아이비리그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첫 관문인 GPA가 4.5

이상이었다. 또한 내신성적도 중요했지만 9학년부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의 학업 난도가 눈에 띄게 달랐다. 예를 들어 학생이 AP Calculus AP를 듣지 않고 바로 AP Calculus BC를 듣고 다음 학년에는 Multivariable Calculus를 들어서 학업 난도를 높였다. 이때 가끔 AP Calculus AB, AP Calculus BC를 차례대로 들은 학생과 비교할 때 AP 개수가 한 과목 부족하기 때문에 석차를 걱정하는 학부모가 계시지만 석차에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결국은 난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난도 있는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SAT/ACT/AP

집차 대학들이 SAT/ACT 시험을 다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탐 명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SAT/ACT 시험 점수를 옵션이라도 제출했

으며 평균 점수들은 1550점 이상인 점수였다. 학생들의 AP 점수도 시험 성적이 5점이 대부분이었고 AP World History 점수는 4점이 많았다.

대학들이 SAT점수를 옵션으로 할 때는 학생들의 요소에서 다른 합격할 수 있는 점들을 더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더 높은 AP 점수와 내신성적 등 SAT 점수를 대신할 수 있는 요소들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 성적이 옵션이라 하여도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3. 지적 호기심 표명

아무리 내신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표출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학생이 관심 있어 하는 과목에 대한 리서치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호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액티비티이다. 물론 예전보다는 더 많은 학생이 이런 활동

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서치에는 시간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하므로 관심이 없는 열정이 없는 학생들은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활동은 학생의 열정과 지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4. 다재다능보다 구체적 인면에 집중

다재다능한 학생들은 피아노도 잘 치며, 운동도 잘하며 토론도 잘하는 학생일 수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예전 가장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룹의 학생들이 다재다능한 학생 유형이라고 알려진 적이 있다. 이런 그룹의 학생들은 하버드 대학 교내에서의 클럽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참여하는 학생들의 그룹으로 가장 행복하게 대학 4년을 보내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의 그룹도 중요하지만, 점점 경쟁들이 심해지면서 좀 더 구체적인 학생의 관심사를 좁혀서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생상을 대학들은 원한다.

유엔에 합격한 학생 중에 환경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전공은 Environmental Science이며, 학생의 그림 실력을 활용하여 환경에 관련된 미술 작품들을 만들었고, 봉사활동으로는 LA City와 연결된 환경 관련 액티비티를 했으며, 회장을 맡아서 커뮤니티에 많은 봉사 시간을 할 여한 학생이었으며 에세이 또한 자신의 뚜렷한 환경에 관련된 철학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간결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에세이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학생의 지원서가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잘 초점이 맞추어진 학생이었으며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보여준 구체적인 지원서였다.

수원 원장 보스틴 에듀케이션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창업자)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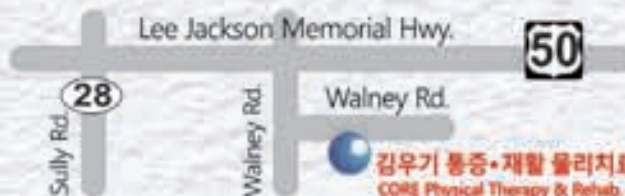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믿고보는 배우 마동석 범접못할 브랜드 됐다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4'가 1000만 관객 초입기에 들어갔다. 11일까지 누적관객수는 945만명으로, 시리즈 누적 4000만 관객 돌파를 향해 흥행 중이다. [사진 에이비오 엔터테인먼트]

영화 '범죄도시4'가 관객 천만 달성 초입기에 들어갔다. 한국 시리즈 영화 사상 첫 천만 관객 3회 돌파다. 마동석(53)의 배우로서 일곱 번째 '범죄도시' 2~4편, '신과함께' 1~2편, '베테랑' '부산행', 제작자로서 세 번째 천만이다.

12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전날(11일) 32만 8000여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 945만 명을 기록했다. 개봉 17일째인 지난 10일 시리즈 중 가장 빨리 900만 관객에 도달했다. 해외 반응도 뜨겁다. 북미·동남아시아·호주·뉴질랜드·영국·아일랜드 등 전 세계 11개 지역에서 개봉했고, 시리즈 중 최고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다.

주연 배우가 제작자까지 맡아 프랜차이즈 성공을 이끈 건 국내에선 유례가 없다. 그간 시리즈 영화는 감독·프로듀서 중심이었다. '범죄도시'는 다르다.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본노의 질주'의 빈 디젤, '미이라' '모아나'의 드웨인 존슨처럼 자신을 브랜드화한 시리즈를 직접 제작·주연한 한국 최초의 액션스타다.

김형석 영화저널리스트는 "마동석은 한국영화 100년 사상 가장 두꺼운 팔뚝으로 '한방' 액션의 쾌감을 선보이고 있다. 감독의 페르소나가 아닌, 스스로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배우"라고 분석했다. 현역 최고참 배우 이순

주연 겸 제작 '범죄도시4' 천만 눈앞 2·3편 이어 첫 '트리플 천만' 예약 '남성성+부드러움' 드웨인 존슨 비스



'범죄도시4'는 개봉 17일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 시리즈 최단기간 흥행 신기록을 썼다.

재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옛날 같으면 모든 오디션에서 탈락했을 배우다. 그런데 자신의 장기를 살리고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 지금의 마동석이 됐다"고 밝혔다.

백은하 배우연구소장은 "마동석은 자신을 상품화해 누구도 침범 못할 브랜드를 만들었다"며 "강한 남성성과 부드러운 면모를 겸비한 드웨인 존슨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팬시용품 가게와 거대한 육체의 남자가 만난" 장면을 예로 들며 "대중의 요구를 영민하게 캐치해 '마동석' 브랜드를 만들었다. 영리한 비즈니스맨"이라고 평가했다.

직접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마동석 스타일은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던 무명 시절, "형사 액션 영화 프랜차이즈에 대한 로망"으로 10년간 1편(2017)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미국에 이민했다가 배우의 꿈을 품고 돌아와 '천군'(2005), '비스티 보이즈'(2007),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2008),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2011) 등에서 조·단역을 거쳤다.

무명 감독·작가들과 의기투합한 창작집단 '팀고릴라'가 기획·창작의 밑바탕이 됐다. 빅런치엔터테인먼트로 이어진 '팀 마동석'의 성장에는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도 한몫했다. '부산행'(2016), '심야의 FM'(2010), '굿바이 싱글'(2016), '시동'(2019) 등에서 마동석은 '마요미'(귀여운 마초) 이미지로 대중적 친화력을 발산했다. 유창한 영어도 그의 무기다. 마블 슈퍼 히어로 시리즈뿐 아니라 '범죄도시' '악인전' '이웃사람'의 해외 리메이크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범죄도시' 시리즈가 속편을 거듭하며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비슷한 비판에 마동석은 "잘하는 것을 단련하는 중"이라 답변한 적이 있다. '범죄도시' 시리즈 역시 세간의 평가보다 자신만의 액션 영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듯하다.

나원정 기자

프로농구 MVP 1~4위 미국 선수 없다

요키치·길저스알렉산더
돈치치·아데토쿤보 차지
NBA 세계화 성공 방증
비미국 선수 20% 넘어

1946년 출범해 78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프로농구(NBA) 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1~4위 득표 명단이 '비미국 선수'로 채워졌다.

최근 NBA 사무국이 발표한 2023-2024시즌 정규리그 MVP 득표 명단에는 4위까지 미국 선수가 없었다.

MVP에 오른 니콜라 요키치(세르비아·덴버)에 이어 사이 길저스알렉산더(캐나다·오클라호마시티), 루카 돈치치(슬로베니아·댈러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그리스·밀워키)가 2~4위를 차지했다. 미국 국적자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건 뉴욕 닉스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었다.



왼쪽부터 니콜라 요키치(세르비아·덴버), 사이 길저스알렉산더(캐나다·오클라호마시티), 루카 돈치치(슬로베니아·댈러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그리스·밀워키).



2006-2007시즌에는 디르크 노비츠키(독일·댈러스)가 북미 밖의 국가에서 온 최초의 MVP로 기록됐다.



노비츠키의 뒤를 이어 2010년 중후반부터 요키치, 아데토쿤보, 돈치치 등이 MVP 경쟁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면서 NBA에 본격 '유럽파' 시대를 열



어졌했다. 차세대 간판이 될 재목으로 꼽히는 선수도 유럽에서 왔다. 올 시즌 압도적 높이를 자랑하며 만장일치로 신인상을 탄 빅토르 웹반야마(샌안토니오)도 프랑스 사람이다.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1980-1981시즌 NBA 선수 중 비미국 선수의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은퇴 시즌인 1997-1998시즌에는 이 비율이 7.6%로 올랐고, 2020년대부터는 20%를 넘어 30%를 바라보고 있다.

브런슨은 1위 표(10점)는 하나도 없었고, 2위(7점) 3표, 3위(5점) 1표, 4위(3점) 28표, 5위(1점) 32표를 받아 투표 점수 192점으로 5위에 자리했다.

동·서부 콘퍼런스를 통틀어 전체 승률 1위 보스턴 셀틱스(승률 78%·64승 18패)의 간판 제이슨 테이텀이 6위

(86점)였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56승 26패)의 젊은 가드 앤서니 에드워즈(18점)가 7위였다. MVP 득표 1~4위가 모두 비미국 선수에 돌아간 건 올 시즌이 처음이다. 미국 외 국적자가 MVP를 받은 최초 사례는 2004-2005시즌 스티브 내시(캐나다·피닉스)였다.

2006-2007시즌에는 디르크 노비츠키(독일·댈러스)가 북미 밖의 국가에서 온 최초의 MVP로 기록됐다.

노비츠키의 뒤를 이어 2010년 중후반부터 요키치, 아데토쿤보, 돈치치 등이 MVP 경쟁에 단골로 이름을 올리면서 NBA에 본격 '유럽파' 시대를 열

어졌했다.

차세대 간판이 될 재목으로 꼽히는 선수도 유럽에서 왔다. 올 시즌 압도적 높이를 자랑하며 만장일치로 신인상을 탄 빅토르 웹반야마(샌안토니오)도 프랑스 사람이다.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1980-1981시즌 NBA 선수 중 비미국 선수의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은퇴 시즌인 1997-1998시즌에는 이 비율이 7.6%로 올랐고, 2020년대부터는 20%를 넘어 30%를 바라보고 있다.

2023-2024시즌 개막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도합 40개 국가에서 온 125명이 NBA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30개 팀 모두가 비미국 선수를 최소 1명은 보유한 걸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 시즌 연속으로 비미국 선수가 120명을 넘었다.

조던이 활약하던 시대에 '전미'에서 선수들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특출난 재능을 끌어모으는 셈이다. 이는 NBA가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화에 성공했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된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달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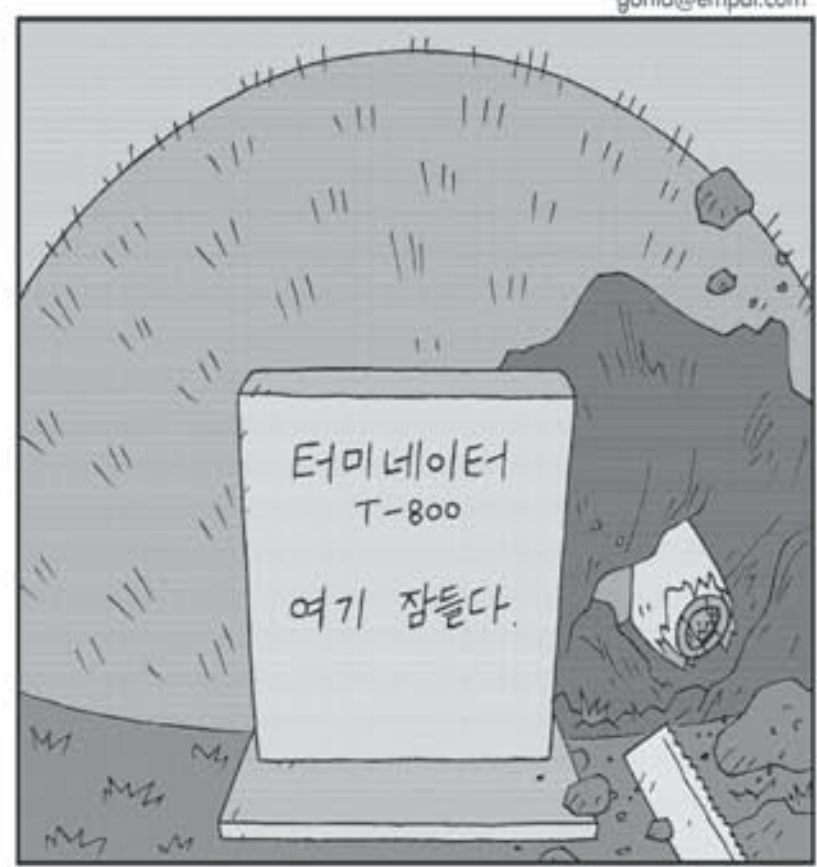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전설**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5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실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실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팩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약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사유 없는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t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화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버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구합니다.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워싱턴 디씨 IAD 공항 라운지
키친스태프를 구합니다
201-551-8861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703-798-7270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시식 & fried
chicken / 파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수일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를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니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중앙일보

풀/파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넌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엘터레이션>

바느질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슈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하실 분(파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엘터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하실 분
파타임/풀타임, 엘리트시티.
410-750-0483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 (애넌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처지
703-577-5866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넌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집소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캔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제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 기술자, 무경력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뷰티 (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합니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hotmail.com
▶301-309-6856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리고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환)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Burke에 위치한 Gift Shop에서
Mother's Day Week에
가게 안에서 일하실 분과 Driver 구합니다.
571-230-7686 Text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넌데일 인쇄회사 풀 / 파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합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피아노 주임예배(11시) 반주봉사할 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우드.
202-271-2726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타운하우스 렌트 (월 \$2,795)
Hmart 근처, 분리된 욕아웃 베이스먼트 (화
장실 포함). 전체 3층, 방 4+ 화장실 3.5.
▶703-244-3453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거실, 화장
실, 방, 키친, 냉장고),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모 \$1,300
571-243-7027 (문자)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 타운홈 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 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 전체 렌트,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애넌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콘도 렌트, 센터빌 사거리 불리장 뒷편,
남향집 조용한 지역, 큰방 2개, 화장실 2개,
H마트 맞은편 도보 10분, 단지 수영장 5분
거리, 지정 주차 및 방문 차량 주차 무한대,
8월 말 입주 가능. \$2,200 (전기세 별도)
703-229-3947

페어팩스 웨그말 걸어서 5분. \$1,150
개인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 들어오는
703-762-6759

<방 렌트>

애넌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뉴 싱글하우스 자하방 2개, Full Bath
703-508-7743

Fair Oak INOVA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방 렌
트. Rt. 50, 286, H-mart 가까운 곳.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인터넷, 남자/금연자 환영.
571-236-0834 (Mrs. Roh)

페어팩스 VA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아주 가까운 곳.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렌트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취사가능.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 (문자 요망)

애넌데일 방 렌트. 전망이 좋고 깨끗합니다.
가구완비. 학생, 직장인 환영 (여자분)
571-232-6052

애넌데일 방 렌트(원룸스타일), 침대, 책상,
냉장고, 전자렌지, 개인사워실, 키친 완비
571-232-6052

아넌데일 h마트 뒤 화장실 딸린 큰방
703-300-8669

저먼타운 MD 콘도 큰방1, 욕실별도
금연자, 롯데 10분거리.
702-622-8853

클리프턴 유니온빌 물 불근 싱글홈 방 렌트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703-732-9153

애넌데일 K마트 뒤 싱글 홈 방1개, 주차 넉넉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단독주택 방 렌트
지하방+거실, 유희방 방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센터빌 롯데 옆 타운홈, 방1개 (욕실/화장실)
571-970-8048

Fairfax GMU 근처 Townhouse 에 방 렌트
욕실 가구완비 \$800 여학생, 직장인 환영
703-981-7615 (문자)

방 렌트, 홈도포 뒤,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모, 인터넷, 가구, 금연
연락처: 301-648-2422

애넌데일 방1개, 부엌, 리빙룸, 샤워
유모, 인터넷, 세탁기(\$1,300)
703-618-6634

MD Silver Spring 한아름 10분거리
조용한 단독주택 2층. 넓은 마스터 베드룸
쓰실분. 가구완비, 인터넷, 간단한 취사
240-543-6427

애넌데일 한강 근처 타운홈 방세놓음
전화: 571-699-9707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
넷, 방 1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Fairfax/Burke NOVA, GMU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모,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구독문의: 703-281-966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싱글홈 No HOA \$470,000
1층, 시니어 생활편리 (방 3),
0.23 에이커 대지,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방 1, 화 1,
병원, 샵핑몰, 그로서리 등 근접 용이


1층 콘도 \$310,000
방 2, 화 2, 전체 실내 Hardwood 구조
저렴한 콘도피 \$260 (Water, Trash 포함)
주차 여건 좋음, 샵핑몰 Costco,
병원 등 인접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828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단독주택 2층방/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
별도/ 주차/샤워별도, 남자분 / 금연자
29번과 198번 사이 메릴랜드 버트스빌
240-413-2738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뒤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내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한
단독 주택, 방 4, 편리한 렐름버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영원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물,
1,500스퀘어, 버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오피스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열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알렉산드리아 location 아주 좋습니다.
한국치킨가게 개인적 사정으로 내놓습니다.
문의전화: 703- 975-7718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엡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메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 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메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특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기·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 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시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개인 및 그룹 미술 지도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시간조율 가능!
703-489-6567(문자바람)

〈중고품/기타매매〉

19년 커머셜 Ford 450/110,000마일/\$55,000
301-751-1631

흰색 Vertical Blind(Triple Door 용)
80"H X110"W. 무사용 새것(Box)
Sale \$400 (Reg. \$800)
703-431-4521 (문자 주세요)

이사(downsizing)세일
-treadmill & bike machine \$100
-세라믹 \$100 -3bikes \$100
-tools \$100 -living room set \$300
문의 : 703-581-2631

에어컨디션 4대 팝니다. 6개월 사용했음
6,000 /8,000 / 10,000 / 12,000(포타블
이동식) 새 것과 다름없음. 전부 \$ 250
703-635-9998 메세지 주세요(첼트리)

고향동산 중앙에 있는 묘지 2자리 팝니다.
571-365-6757

-거실용 대형 카펫 \$1000
-도자기 꽃병(4세트) \$100
-교차상 2개(정사각형, 직사각형) \$100
-손수 만든 화장대 \$100
703-401-9905

허리 운동하는 까꾸리 \$50(사용설명서)
240-477-3232

골프채 판매
-드라이버 9.5도 315cc
-아연 닉센트 4-9 S P번까지 8개
-던랩 (스페인제) 3-9 PS 7개
-요넥스 6-9 PN 6개
240-475-4166

중고 승용차 팝니다. 운행에 지장 없는 차
파시려는 분은 연락바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무,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웍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밀리버리
소방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적,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하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징,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무료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 dc.thekoreadaily@gmail.com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그렇다고 세상이 끝난건 아니죠

(Ted and Jerry are meeting some friends to go to a movie~)

(테드와제리가 영화보러 가려고 친구들과 만난다~)

Ted: Hi Jerry is Jenny coming with us?
테드: 안녕, 제리. 제니와 같이 가는 거야?
Jerry: Yes why?
제리: 응 왜?
Ted: Nothing just asking.
테드: 아무것도 아냐 그냥 물어본 거야?
Jerry: Just asking? Then why are you blushing? Oh, you have a crush on her, don't you?
제리: 그냥? 그럼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져? 어, 너 걔 좋아하는구나. 아냐?

Ted: What are you talking about?
테드: 무슨 얘기하는 거야?
Jerry: Come on admit it. You like her.
제리: 그러지 말고 시인해. 걔 좋아하는 거잖아.
Ted: Well, maybe a little but I don't have the guts to ask her out.
테드: 어쩐 조금은 하지만 데이트 신청할 자신이 없어.
Jerry: What are you afraid of?
제리: 뭐가 무서워서?

Ted: If she turns me down I would totally die.
테드: 싫다고 하면 난 정말 죽고 싶을테니까.
Jerry: You've got to take a chance. It wouldn't be the end of the world.
제리: 모험을 해야지.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냐.

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 turn (someone) down: (제안 요청 등을) 거절하다
"She was so convincing that I couldn't turn her down." (그녀는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 to totally die: 창피해서 죽고싶다
"I totally died when the teacher asked me a question that I couldn't answer." (선생님께서 제가 답 모르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전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ask (somebody) out: 데이트 신청 하다
"I asked her out but she told me no." (그녀에게 데이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같이 잘 생각함. 오랜 ~ 끝에 내린 결정이다. □사□□ (5)요행을 바라는 마음 (7)관자나 천막 따위로 임시로 간단하게 지은 집 (9)부드럽게 구부러진 선 (11)사람이 산과 바다를 이룰 만큼 많음. □□인□ (13)조작의 일원으로 받아들임 (15)칼로리가 높고 당질이 많은 초승달 모양의 알칼리성 식품. 중요한 식용작물 가운데 하나이죠 (16)봄바람 (17)썩지 않고 건조되어 남아 있는 인간이나 동물의 사체 (18)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헛소리 (20)증기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 (22)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몇 개 동네에 한 집씩 동네 사람들의 ~을 건사해 줄 무당 집이 있게 마련이었다. □홍□□ (24)국가나 민족을 위하여 일하려는 드높은 뜻을 가진 사람. 애국 ~ (26)서로 아름다움을 겨룸. 세계 74개국의 대표 미녀들이 ~에 나섰다 (28)구조가 쓸모 있고 아름답게 지은 집 (30)조선 인조 때 청나라가 침입해 온 난리 (31)무청이나 배춧잎을 말린 것

세로열쇠

(1)즐거 부르는 노래 (2)승려가 입는 법의(法衣).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다 (3)깊고 깊은 산천. 봄이 왔네. 봄빛이 왔네/버드나무 끝에도 실가지에/봄빛이 왔네. 봄날이 왔네/~에도 금잔디에(김소월) (4)얇은 막으로 된 청각 기관. 귀청 (6)길을 가는 사람 (8)핀란드식의 증기 목욕. 가열한 물에 물을 뿌려서 증기를 일으켜 그 열로 몸을 내고 자작나무 가지로 가볍게 몸을 두들겨 마사지를 한다 (10)조상의 무덤 (12)추울 때 양지바른 곳에 나와 햇볕을 쬐는 일 (14)길운을 기원한다는 뜻으로, 입춘에 대문이나 기둥에 써붙이는 글귀 (18)참호나 잠수함 따위에서 쓰는 반사식 망원경 (19)매우 호화로우 눈부시게 아름다움 (21)잡승을 잡아서 받은 피. 국이나 찌개 따위의 재료로 쓴다 (23)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침. 이 사건은 여러 ~ 요인으로 발생하였다 (25)육체적·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 (27)장티푸스 등 전염성을 가진 병. 못마땅할 때 욕으로 하는 말. ~하고 자빠졌네 (29)코카서스 인종에 속하는 유랑 민족

스도쿠

4			5	7			1	
	2				6		5	
1	3				2			
			4			3	6	
6		8			7			
	4				8	1		
		9		2		6	8	
						4	7	5
			1	6		9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3	6	5	9	1	4	7	8
5	7	4	3	8	6	1	9	2
1	8	9	7	2	4	6	5	3
7	2	1	8	6	9	3	4	5
6	4	5	7	3	2	8	1	9
8	9	3	1	5	4	2	6	7
9	6	7	2	4	8	5	3	1
4	5	8	9	1	3	7	2	6
3	1	2	6	7	5	9	8	4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유명한 배니스 비치가
선글라스 안경+잡화
전망좋은 장소에서
삶을 찾아보세요
부부적합,가 15만(Inv포함)
(310)266-8086

Senior Manager:
Manage sales strategies and
operations: Bachelo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Mechanical
System Design Engineering
or related req'd, 40hrs/wk:
Apply to Kumho Tire U.S.A., Inc.,
133 Peachtree St. NE, Ste. 2801,
Atlanta, GA 30303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월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남성도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야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성 발기 링, 전설의 낙타 속눈썹
& 바르고 하면 남녀 모두 흥풍가는
바르는 성생활 흥분제, 유효유 겔

1-213-210-9720, 전화,보이스톡,카톡,텍스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비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주 최대 할인 업소록 + 모바일 App

Up to 40%
최대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일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8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 변비, 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루는 링드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BAYVIEW ADVISORS FOR HEDGE FUNDS

All about Hedge Funds Investment

30 Years of CPA experience for Hedge Funds

회사 설립 도와 드립니다.

운영, 투자, 회계 관리 전문

경력 QR code 참조

CHRIS CHUNG
MANAGING DIRECTOR
516-321-0353 chris@bayview.llc

JOHN CHUNG
John.chung@bayview.llc
917-609-5690

CONTACT US : EMAIL / TXT ONLY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